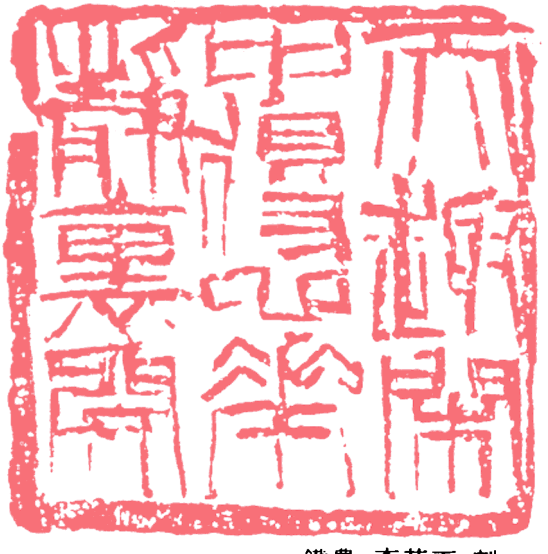
雅堂金石文集

第三輯　高麗國子進士耘谷墓碣

半江古典研究所

第三輯　高麗國子進士耘谷墓碣

半江古典研究所



天趣閑中得
心華靜裏開

鐵農 李基雨 刻

一 序 文 一

지난해 11월 雉岳金石文集 第二輯 出版紀念會 때 성황을 이뤄주시고 物心兩面으로 協助해 주신데 힘입어 第三輯 續刊을 결심하고 편집에 들어가 이젠 인쇄에 부치게 되어 雉岳金石文集 第三輯을 江湖諸賢 案前에 내놓게 되었다.

第三輯은 耘谷 元天錫 先生의 墓碣을 택하였다. 麗末 雉岳山에 入山하여 隱居하면서 朝鮮開國 後에도 終身不出한 隱遁선비로 孤高한 志操를 다듬어 지키고 道를 지킨 높은 그리고 맑은 氣品을 지닌 참으로 대단한 偉人이기에 世態가 어지러울수록 그 人品을 思慕하게 되는 그런 思想的 指導者로 尊崇의 師表이기에 耘谷先生墓碣을 택하게 된 것이다.

拓本에서 編輯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最善을 다하여 일한 研究所 식구들의 努力에 感謝한다.

곧 이어서 다음 第四輯을 착수 할 것이다. 또한 原州市 一山洞에 마련된 研究所事務室이 깨끗하게 새단장 되었고, 곧 이어 研究所 懸板式도 擧行할 생각이다. 洪顯起 사장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研究所를 代表하여 표한다.

모쪼록 本三輯이 우리 서로와 옛으로 연결되어 앞날로 이어져 목마르고 외로우면서 義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벗이 되길 心祝한다.

서기 1994年 2月 25日

半 江 古 典 研 究 所

所 長 金 鎬 吉

— 「雉岳金石文集」第一輯 序文 —

金石文이란 보통 鍾·鼎·彝·碑·碣에 刻字된 記錄을 말한 것으로 그 목적은 그 事由를 永遠히 後世에 傳하고 싶은데서 시작된 것이다. 옛날의 文化가 가장 오랜 形態로 遺存되어 後世에까지 그 生命을 永續시키고 있는 金石文은 그 制作年代가 분명할뿐 아니라 碑碣일 경우 그 人物의 始末이 記錄된 內容과 그 形態制度 및 刻字의 書體 등을 통해서 考古學·史學·書藝·文學을 硏究하는 貴重한 資料로서의 意義를 지닌다.

金石이 어떤 地域에 많은가 하는 事實은 그 地方의 人物과 名地를 자랑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文化的 遺産은 항상 破損될 危險性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拓本의 方法을 통한 保存方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大成高等學校 學生과 指導敎師들이 數年間 合心하여 江原道內에 흩어져 있는 金石碑文을 拓本하여 놓은것을 儒道會 原州支部 後援으로 출간 됨은 참으로 慶賀할 일이 아닐수 없다. 文化的 保護의 觀點에서도 그 價値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거니와 그러한 作業을 통하여 學生들과 鄕土市民들로 하여금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自己發見의 좋은 機會로 삼을 수 있으며 나아가 鄕土를 사랑하는 精神의 確立을 期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훌륭한 이러한 작업이 보다 發展的인 集大成으로 發刊되어 이 方面의 重要한 資料로 活用되길 바라면서 大成高等學校가 主催하는 展示會나 金石文集을 펴내는 儒道會原州支部의 無窮한 發展을 빌면서 蕪辭로써 序에 代身하는 바이다

1981年 10月 27日

鐵 農 李 基 雨

—「雉岳金石文集」第二輯 序文 —

雉岳金石文集 第二輯을 내는 서문 겸 발간사를 쓰는 마음 만감이 서린다. 1981년 11월초 원주카톨릭회관 2층 전시실에서 탁본전시회를 열면서 전시품의 일부를 사진을 찍어 얄팍한 책자를 내면서 표지는 철농 이기우선생께서 雉岳金石文集이라 각을 떠주셔서 사용하였고 표지이면에도 天趣閑中得心華靜裏開라고 7cm×7cm 크기의 유인도 해주셔서 사용하였다. 전시기간중에 청명 임창순 선생, 정규복 교수, 한만년 사장, 이규동 선생 일행과 문암 임중빈 인물연구소 소장의 내원으로 격려고무된 기억이 생생하다. 이는 태암 장윤 선생의 도움이었던 것도 잊을 수 없다. 그후 원주문화원 향토사연구회를 통하여 황주익 원장, 이치중 선생 그리고 청강 장일순 선생의 격려도 오늘을 있게 한 힘이다.

그때 소책자의 금석문집을 평한 아픔의 질책을 거울삼아 원촌의 크기로써 탁본과 연고있는 활자본이나 문집본을 곁들이고 이를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시민이나 이 방면에 뜻을 둔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면에 비문탁본, 문집, 번역문이 들어가게 짜넣고 뒤에는 참고가 되는 논문이나 관련된 도움글을 싣고자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2집은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귀암(歸菴) 박권(朴權)선생의 묘비를 택하였다. 원주근교에는 국보, 보물, 지방 지정·비지정 문화재급의 보물급이 많다. 그중에서 귀암선생의 비문을 택한것은 비의 파손이 심하고 하반부의 부식이 심할 뿐 아니라 수호자도 없게 되어 더 마멸되기 전에 문헌화하여 후일을 기하려는 마음에서이다. 더구나 귀암선생의 타계후 왕조는 망하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조국은 분단되고 토문강 경계로 국경을 정한 역사적 사실이 깨지고 마멸되는 돌비에서 지워져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명학자의 한(恨)만은 아니겠기에 옛 표지의 모습을 살려 치악금석문집을 낸다.

이제는 고등학교 교실에서의 홍안소년이 아니고 헌헌장부가 되어 대학, 대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횡성에서 서예학원을 경영하는 채희승군,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연구활동하는 김성찬군과 사제지간의 힘을 모아 발간하니 더욱 기쁘다.

강호제현의 바로잡는 가르침과 제3집, 제4집이 속속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의 협조를 간절하게 비는 바이다.

서기 1993년 11월 10일

半江古典研究所

所長 金 鎬 吉

— 일 러 두 기 —

一. 종래의 金石書는 원문만을 영인 또는 조판하여 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어서 전문가만의 활용대상이 되었으나, 본 『雉岳金石文集』 第三輯은 金石文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원래 碑文의 탁본과 함께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一. 本書의 체제는 앞부분에 해당 금석문형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元天錫 先生 墓갈의 사진과 탁본 전면 사진을 수록하였다.

一. 本書는 原碑의 1行을 두 쪽(2Page)으로 기준 잡아 두 쪽(Page)에 原碑의 한 行과 그에 대한 譯文을 수록함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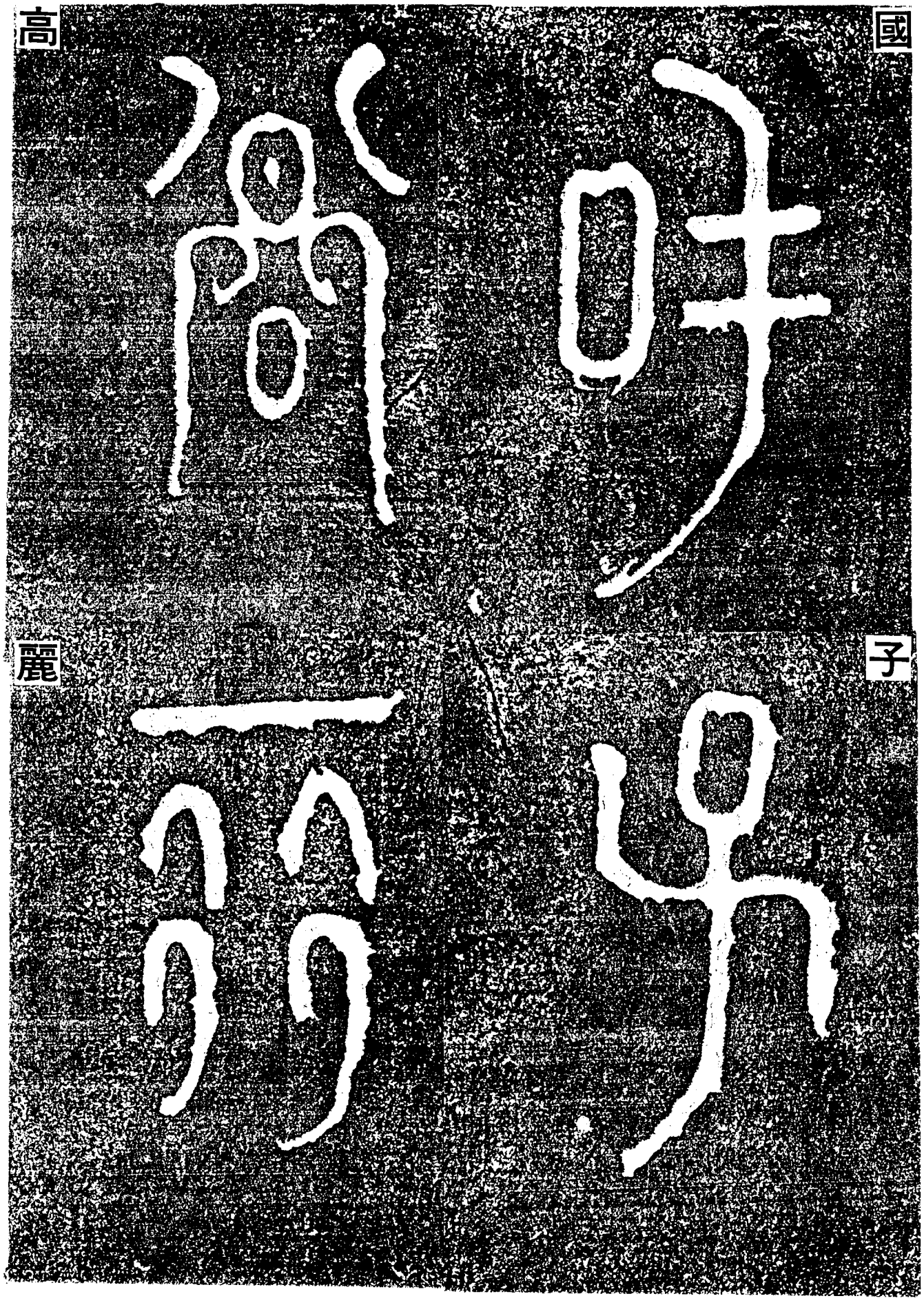
一. 初學者들을 위해 碑文을 懸吐하여 양면 一行의 여백에 함께 실었다.

一. 本書는 旣存의 金石文이 右→左, 上→下로 편집된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책의 체제와 같이 左→右, 上→下로 편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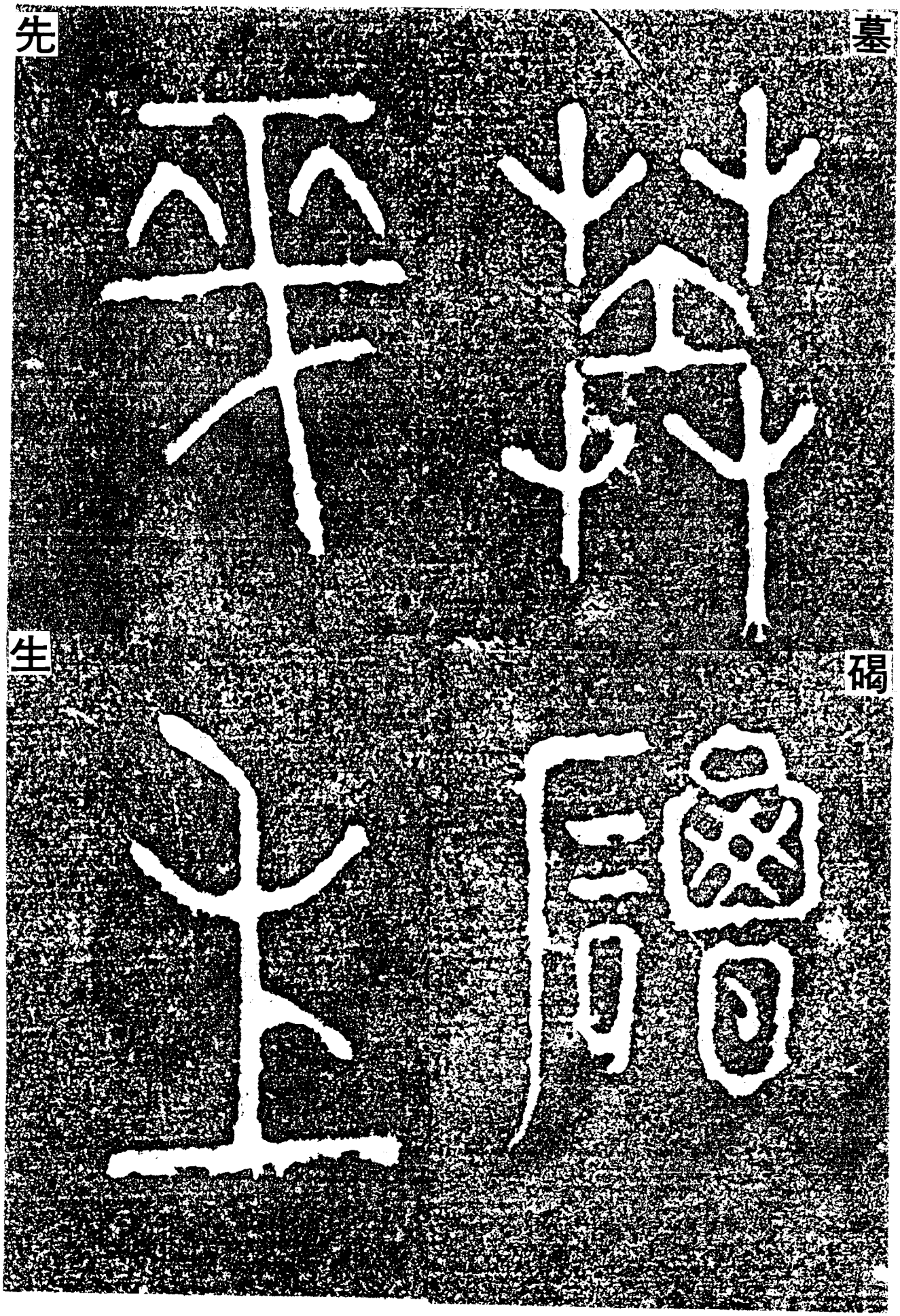
一. 번역문은 해당 金石文의 내용파악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평이한 文體를 사용하였다.

一. 本書는 原寸 拓本의 실제 크기로 수록하였다.

墓碣寫眞


高
國
麗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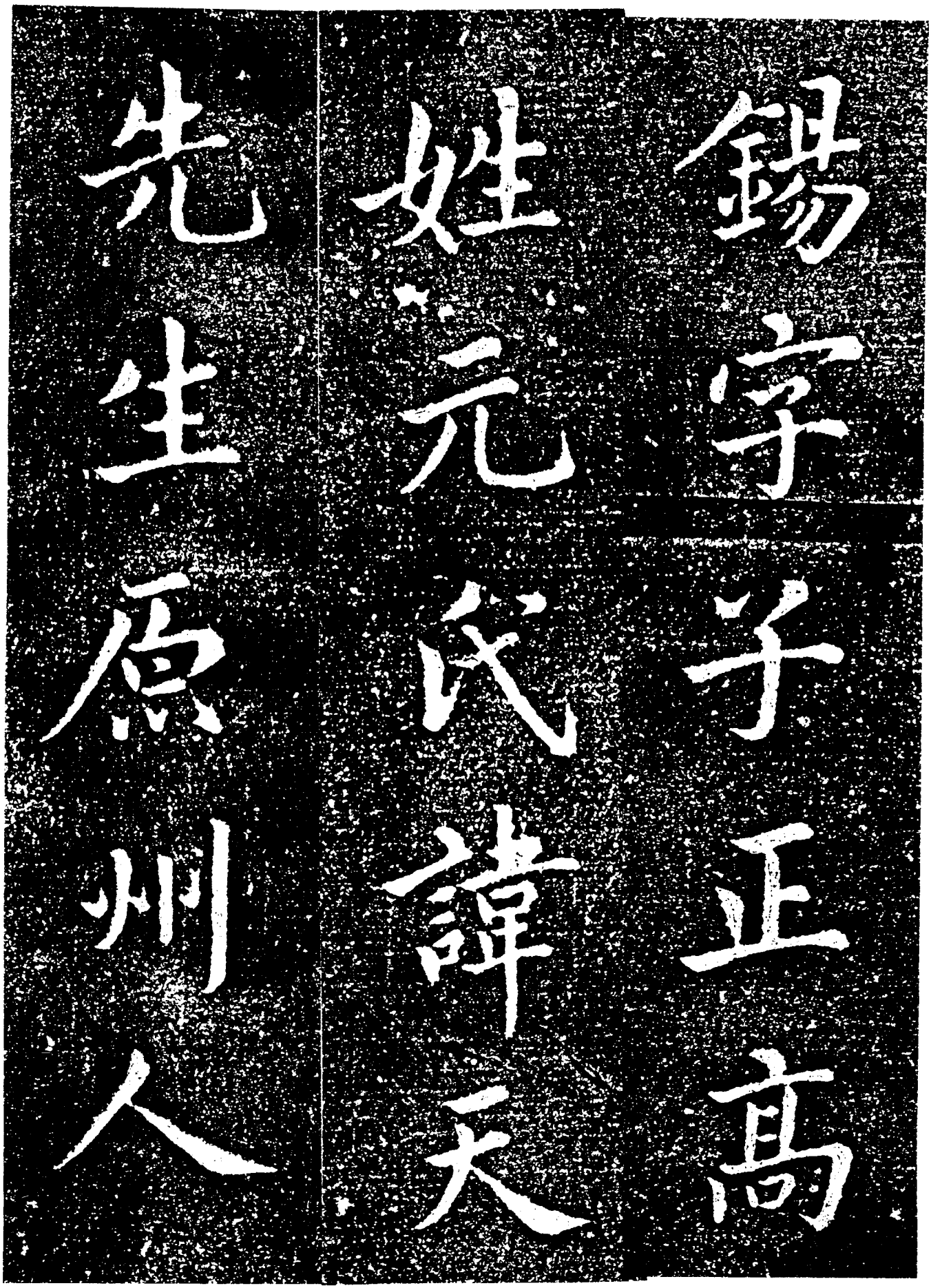
進
耘
士
谷


先
墓
生
碣

生葬碣

進士耘谷先

高麗國子



先生은 原州人으로 姓은 元氏요 諱는 天錫, 字는 子正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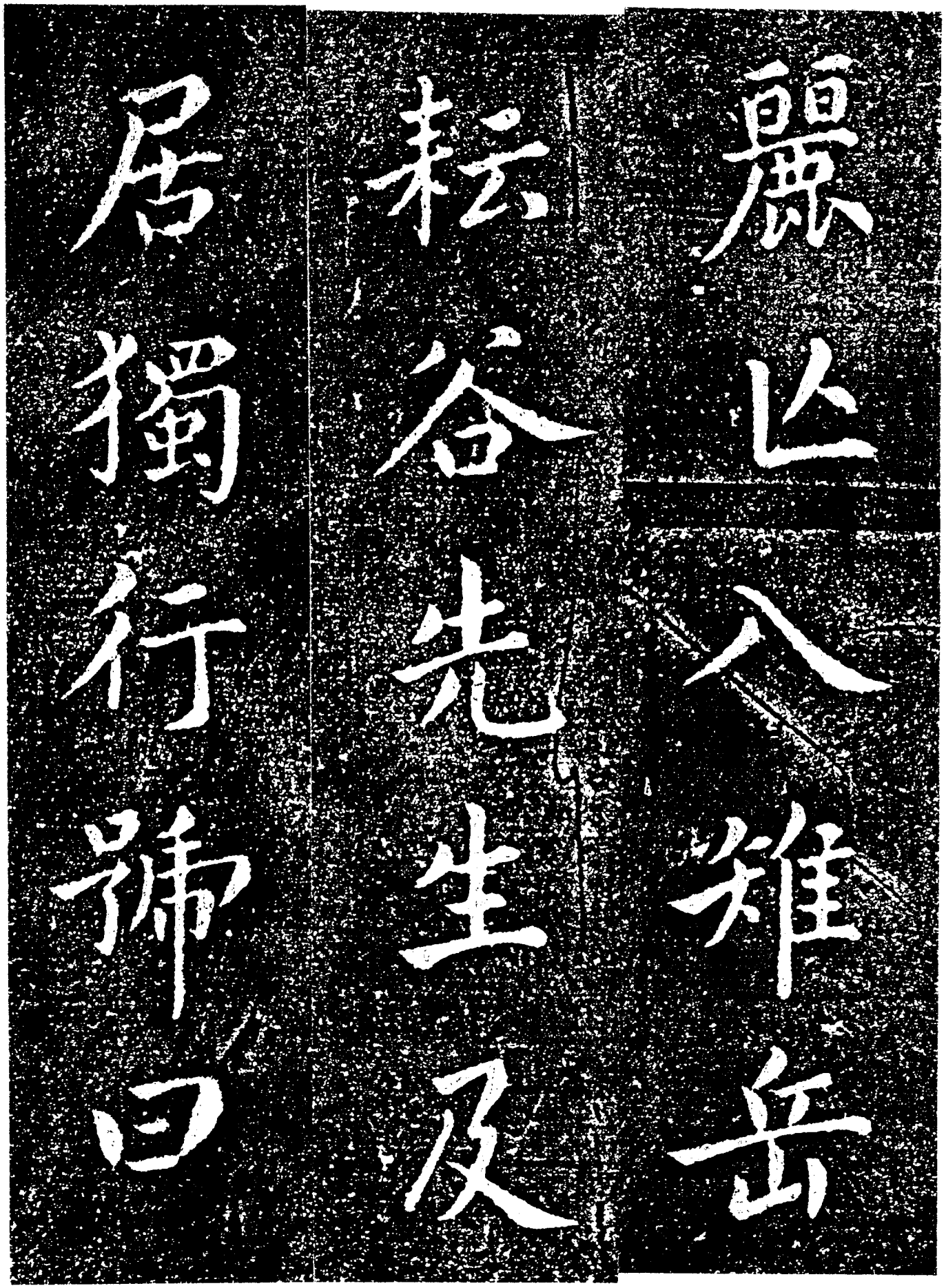
隱見麗氏政亂

麗國子進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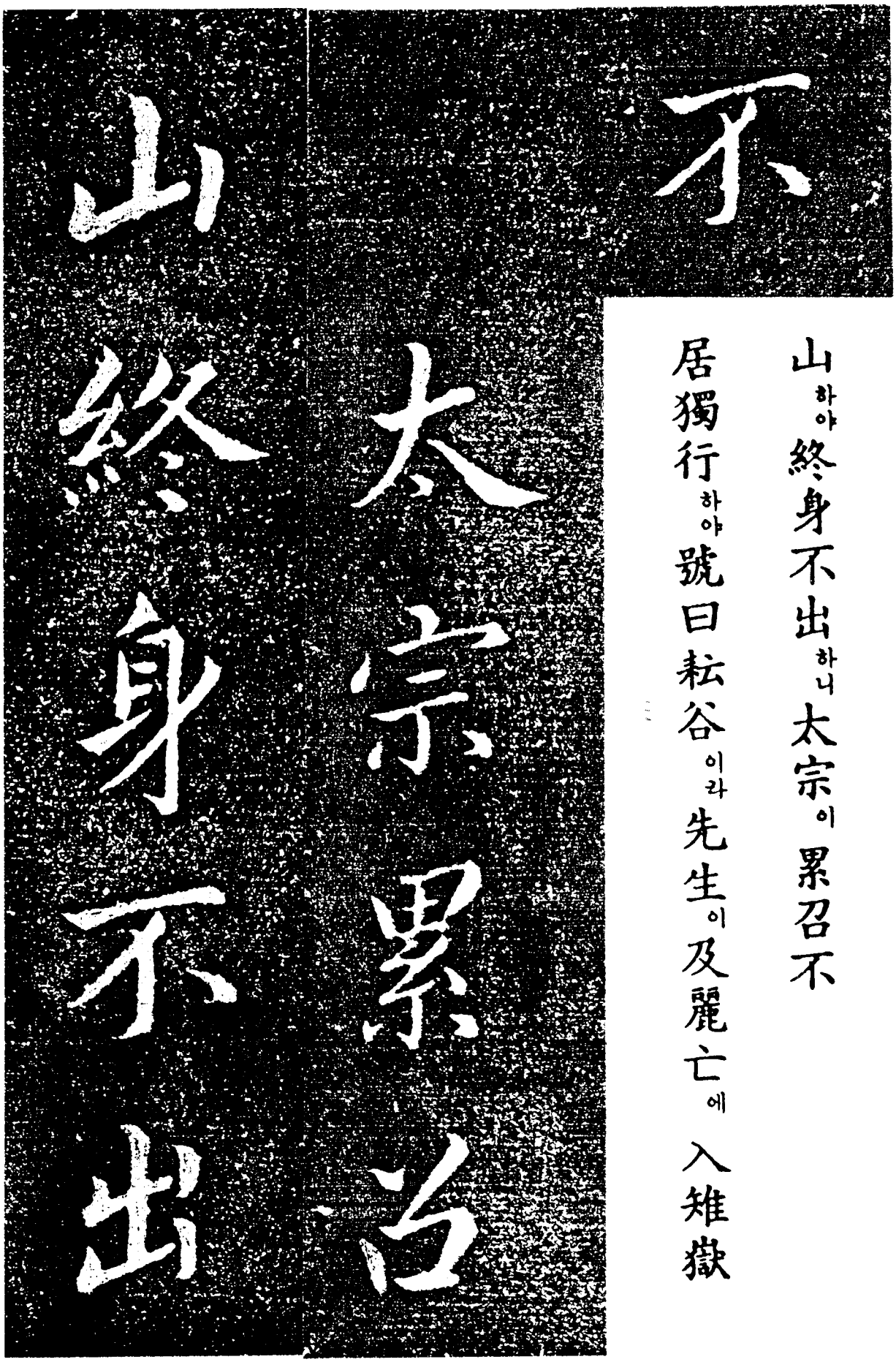
麗國子進士라 見麗氏政亂하고 隱

先生은 原州人이니 姓은 元氏요 諱는 天錫이오 字는 子正이니 高

高麗國子進士이다. 고려정치의 어지러움을 당하여 은거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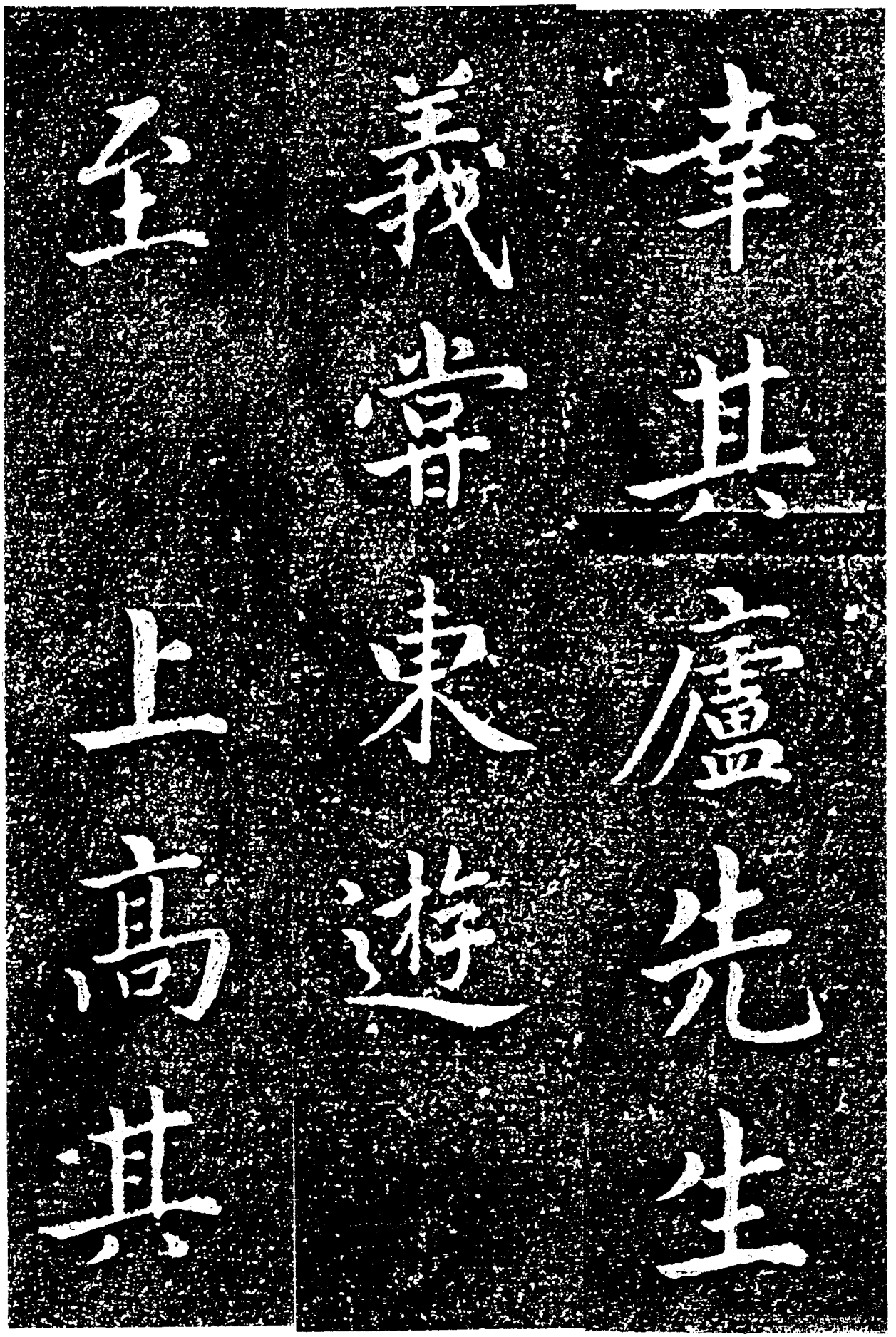


홀로 道를 행하면서 號를 耘谷이라 하였다. 先生은 마침내 고려가 망함에 이르러 雉岳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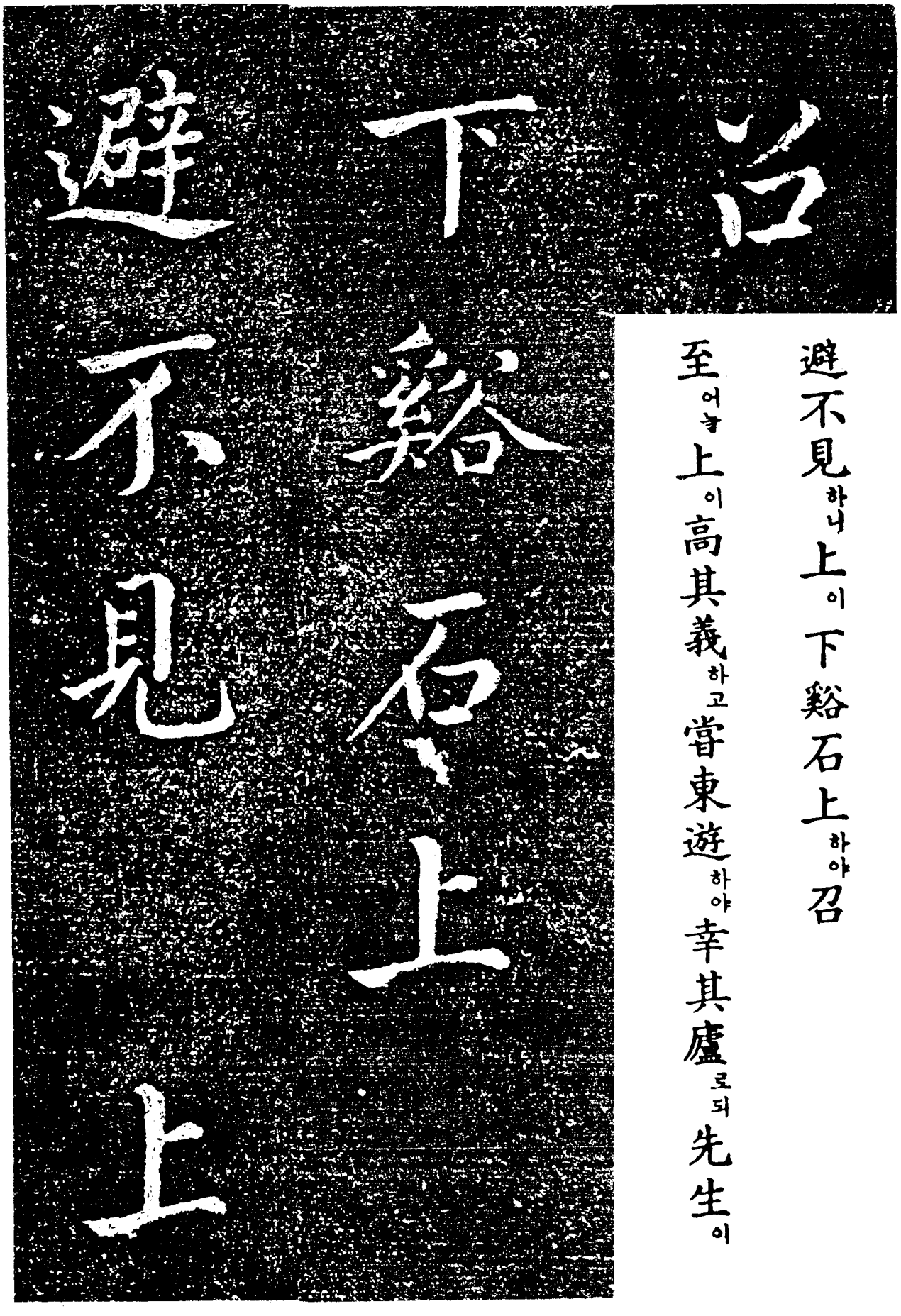


山하야 終身不出하니 太宗이 累召不
居獨行하야 號曰耘谷이라 先生이 及麗亡에 入雉嶽

들어가 종신토록 나오지 않았다. 太宗이 여러번 불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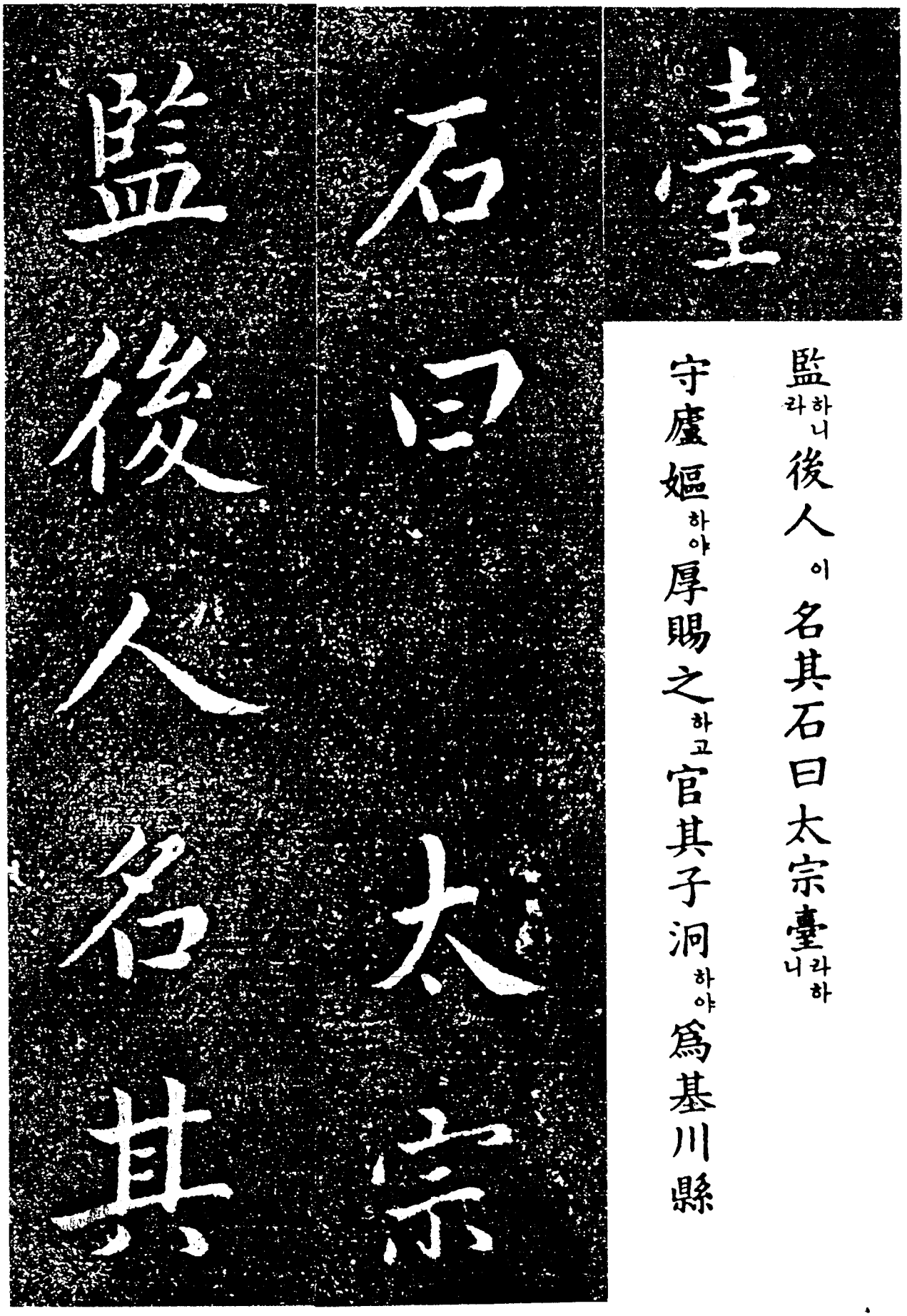
나오지 않았다. 임금은 그 의로움을 고상하게 여겨 일찌기 東遊할 때 그의 거처로 찾아갔으나 先生은



避不見하니 上이 下谿石上하야 召
至어늘 上이 高其義하고 嘗東遊하야 幸其廬로되 先生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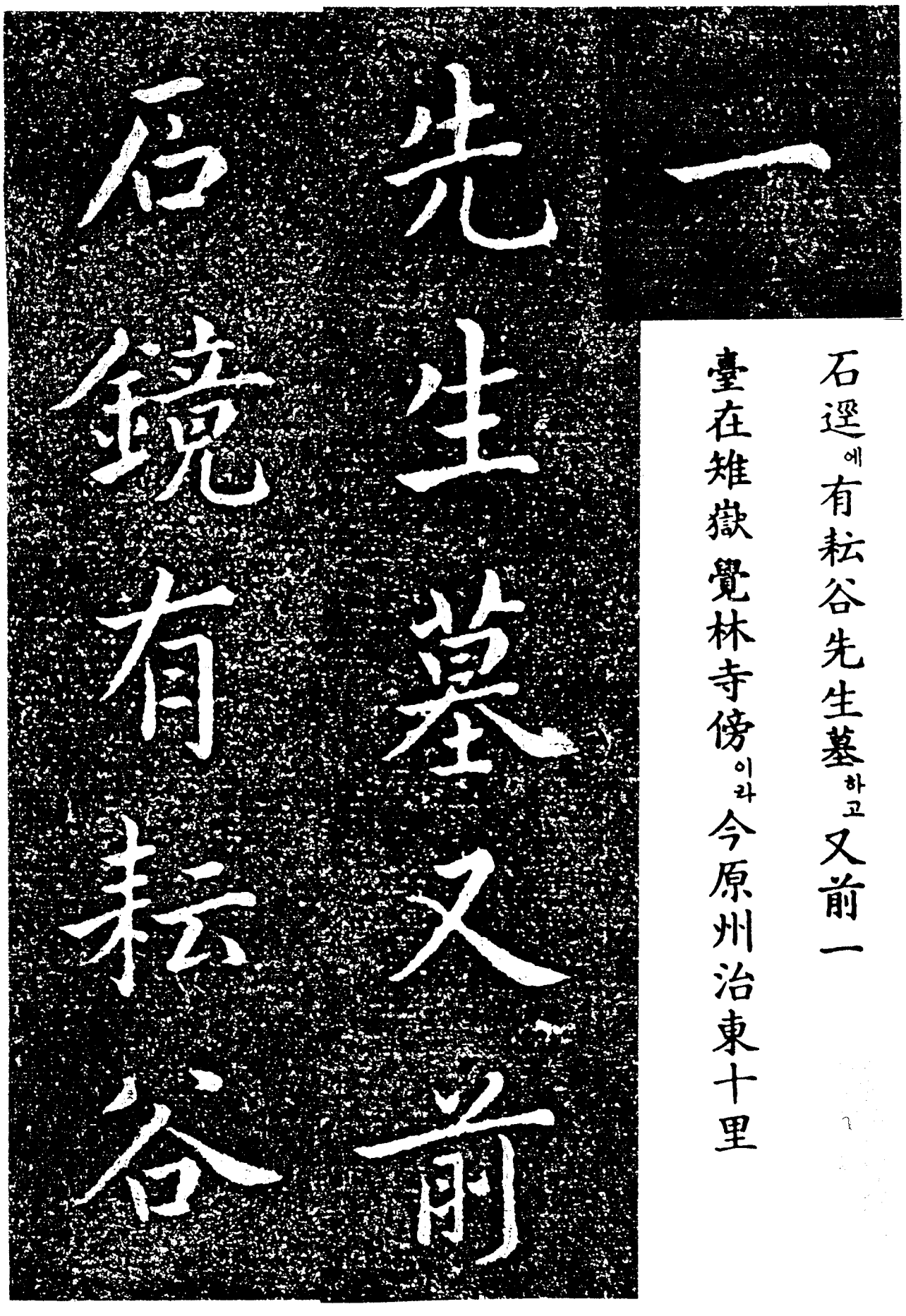
피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太宗이 내려서 溪石위에 올라

거처 지키는 노파를 불러 후사하고 先生의 아들 洞에게 基川縣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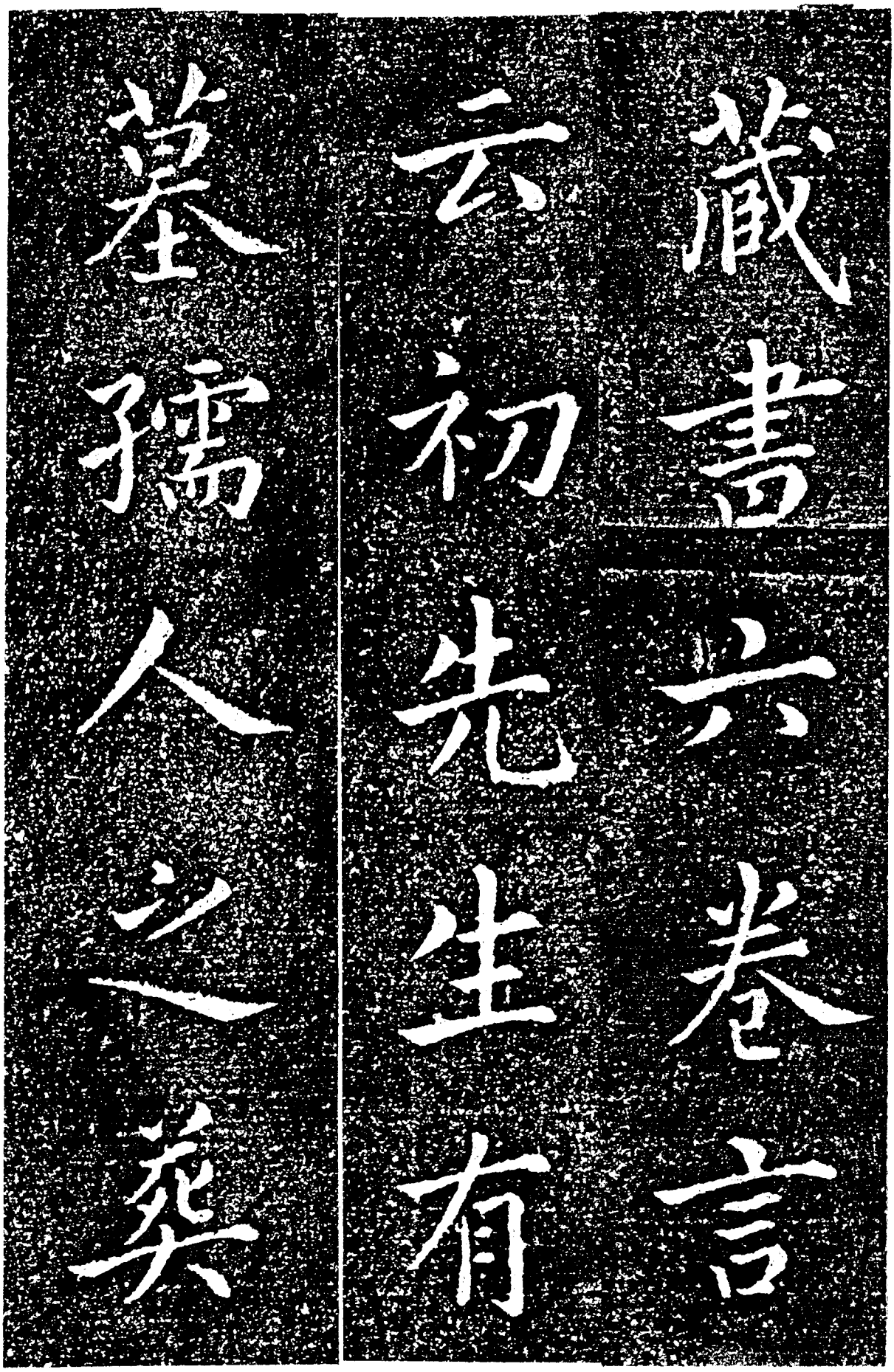


벼슬을 주었다. 후인들이 그 溪石을 이름하여 太宗臺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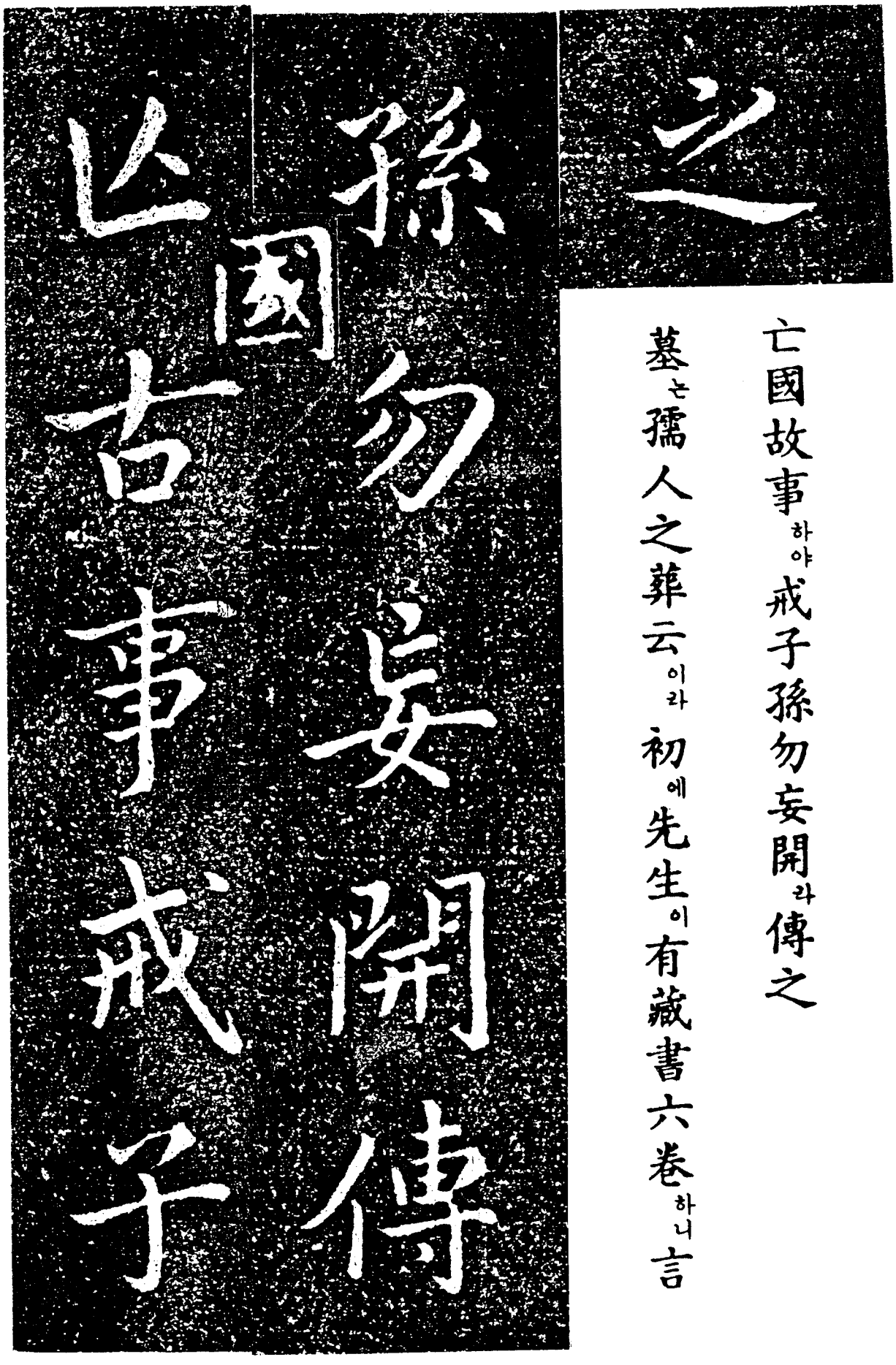
太宗臺는 雉岳山 覺林寺 근방에 있고 지금의 원주 동쪽 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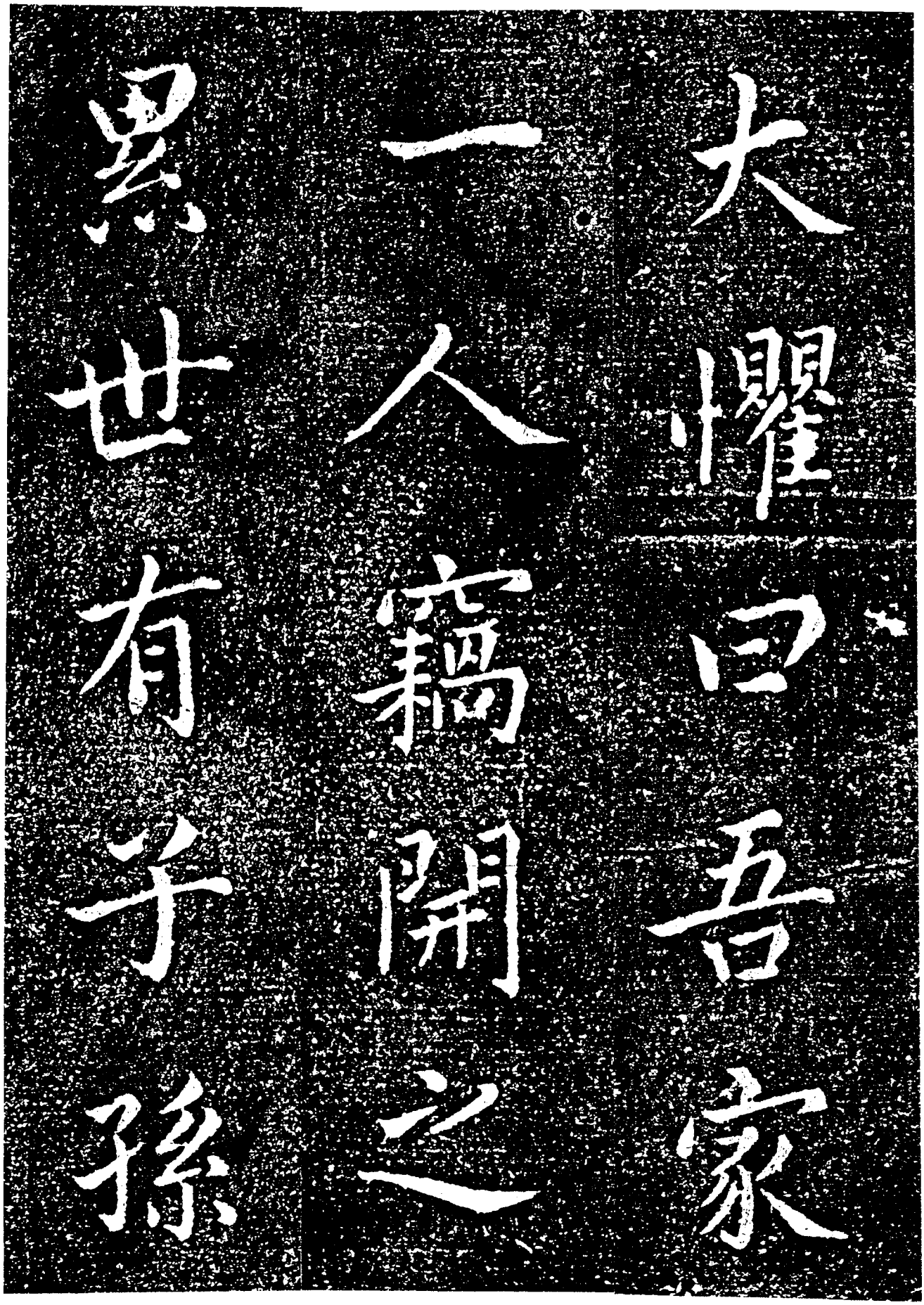
돌갱이에 耘谷先生 墓가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하나의 墓는 부인을 장사 지낸 곳이라고 이른다. 애처에 先生에게는 藏書 六卷이 있었는데



이는 亡國의 古事를 기록한 것이라 자손들에게 경계하여 함부로 열지 말도록 하였다. 전해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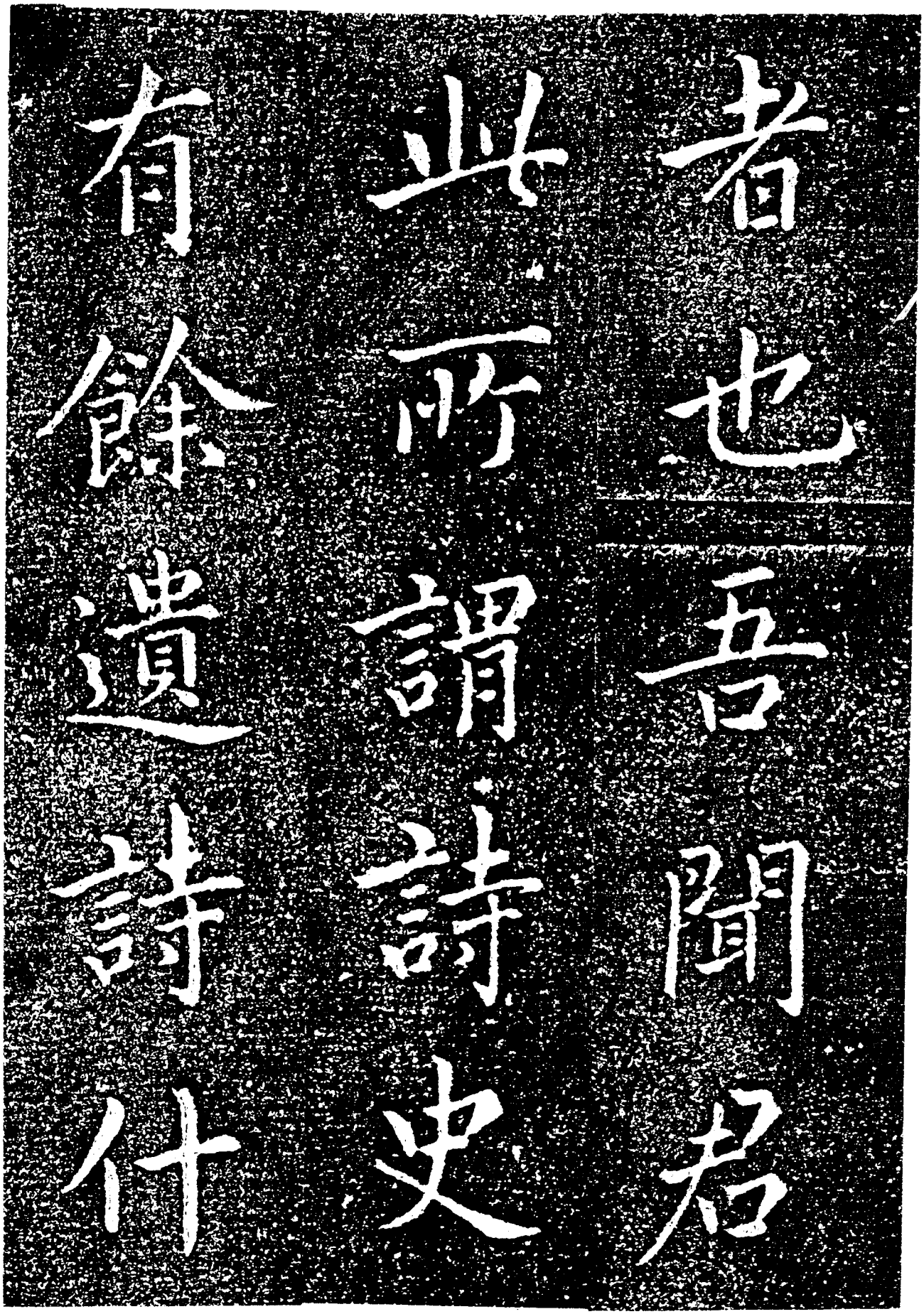


여러 대가 지난 다음 어떤 후손 한 사람이 몰래 열어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족의 일이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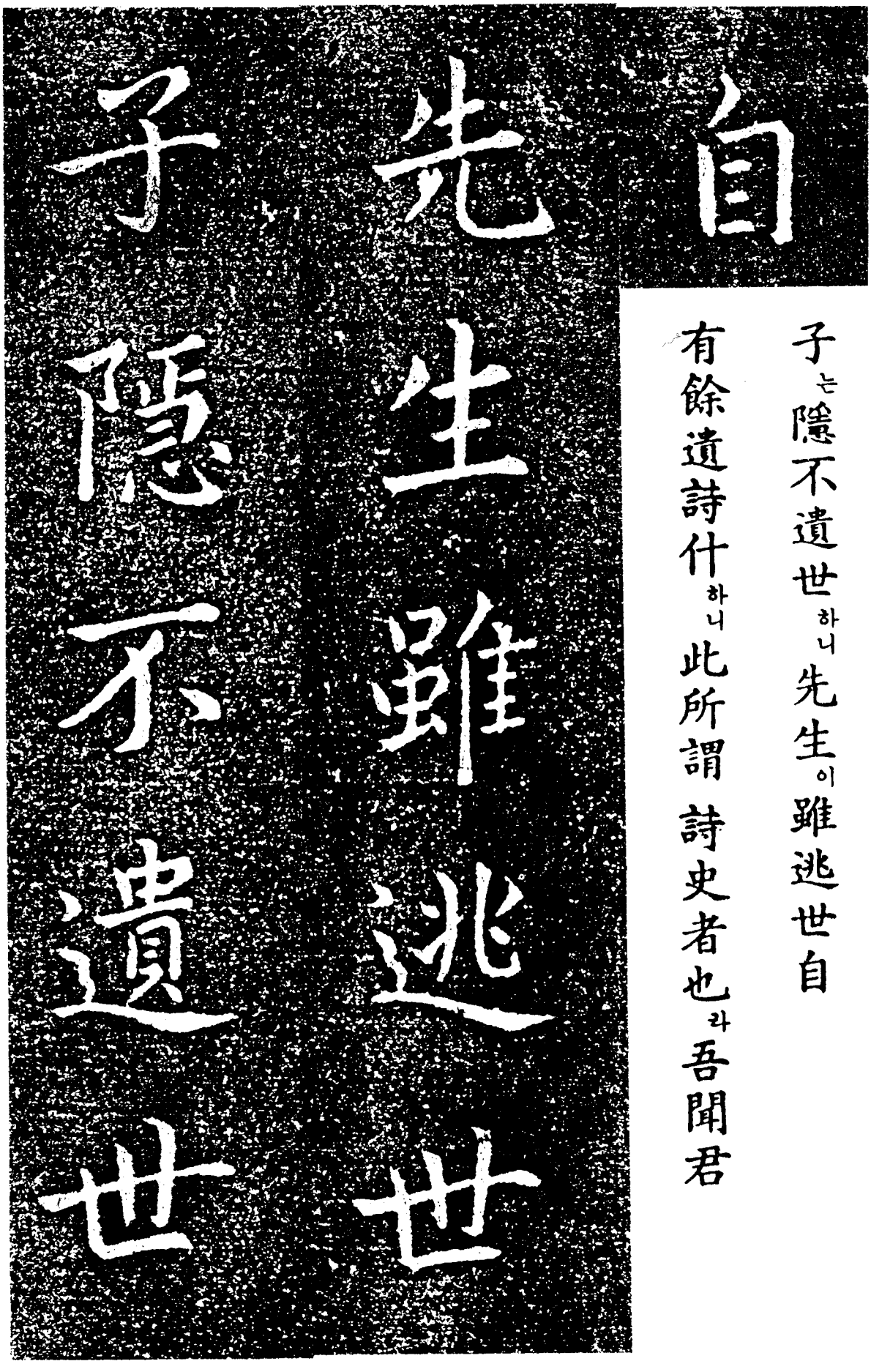
猶之其書不傳族矣舉而燒之

族矣라 舉而燒之하야 其書不傳하고 猶屢世에 有子孫一人이 竊開之하고 大懼曰 吾家

이를 들어 불살라 버려 그 책은 전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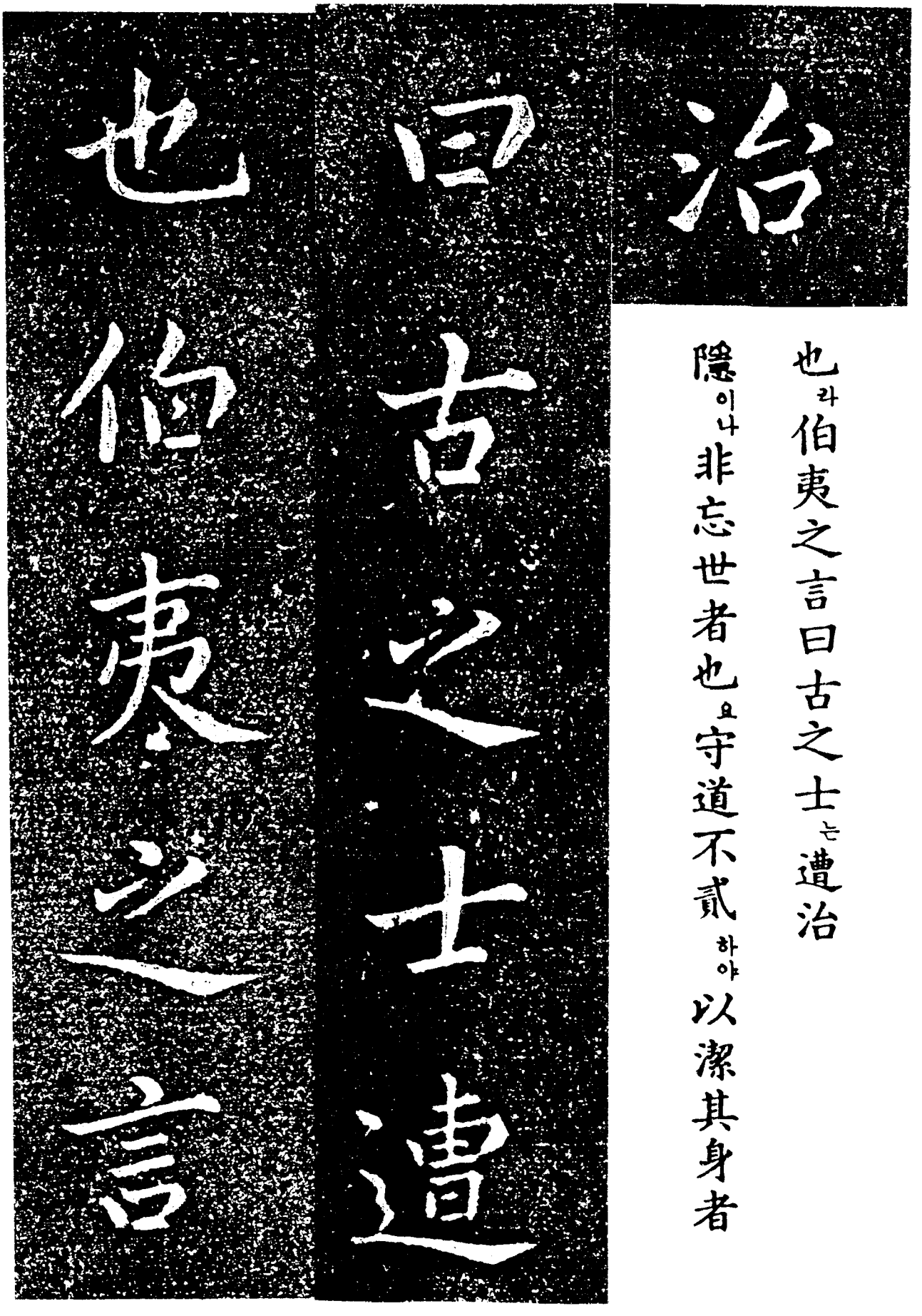
오직 남아 있는 시집이 있었으니 소위 이른바 詩史이다. 내가 들은바 군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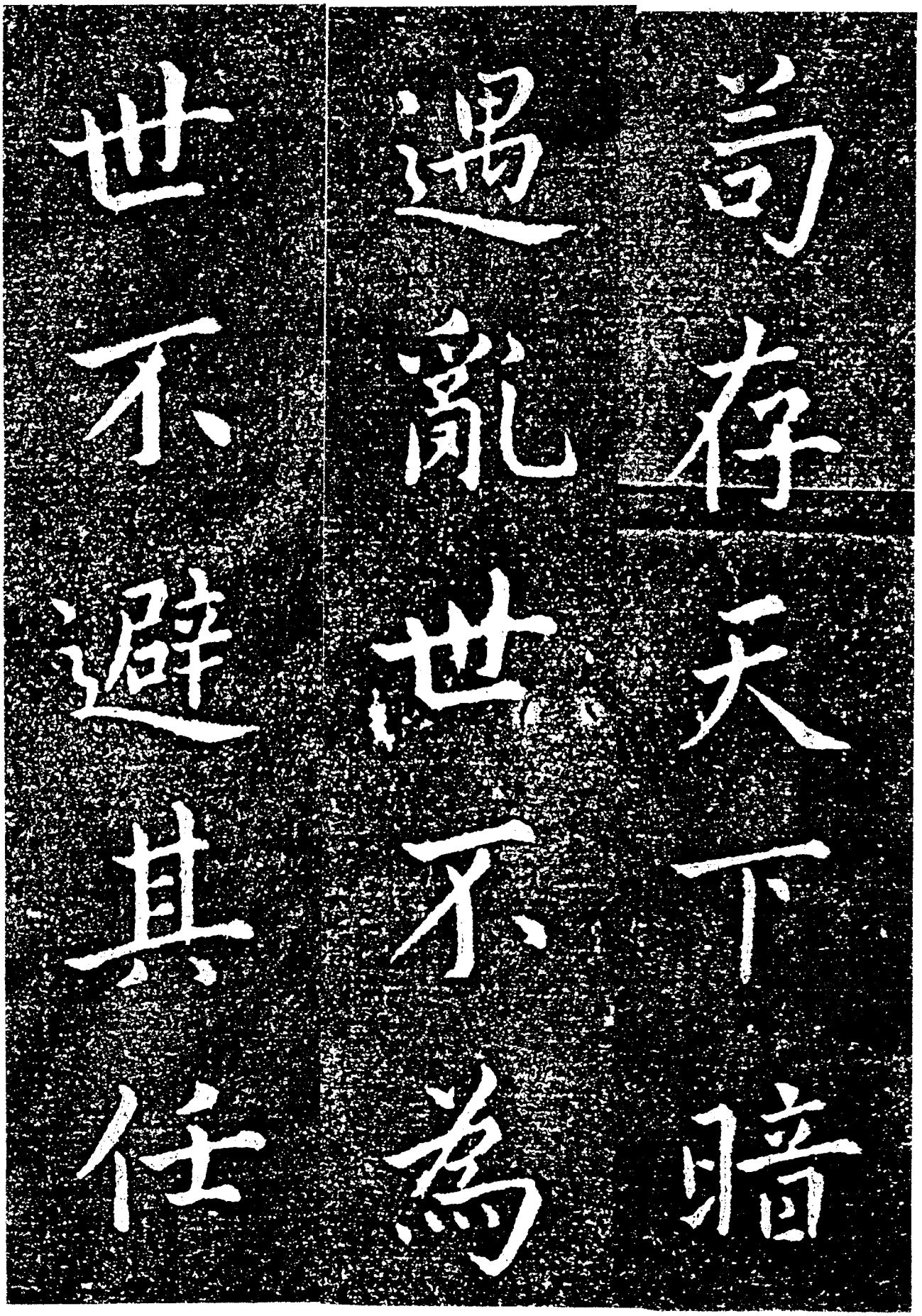
子는 隱不遺世하니 先生이 雖逃世自
有餘遺詩什하니 此所謂 詩史者也라 吾聞君

은둔하여도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하였는데, 先生도 비록 세상을 피해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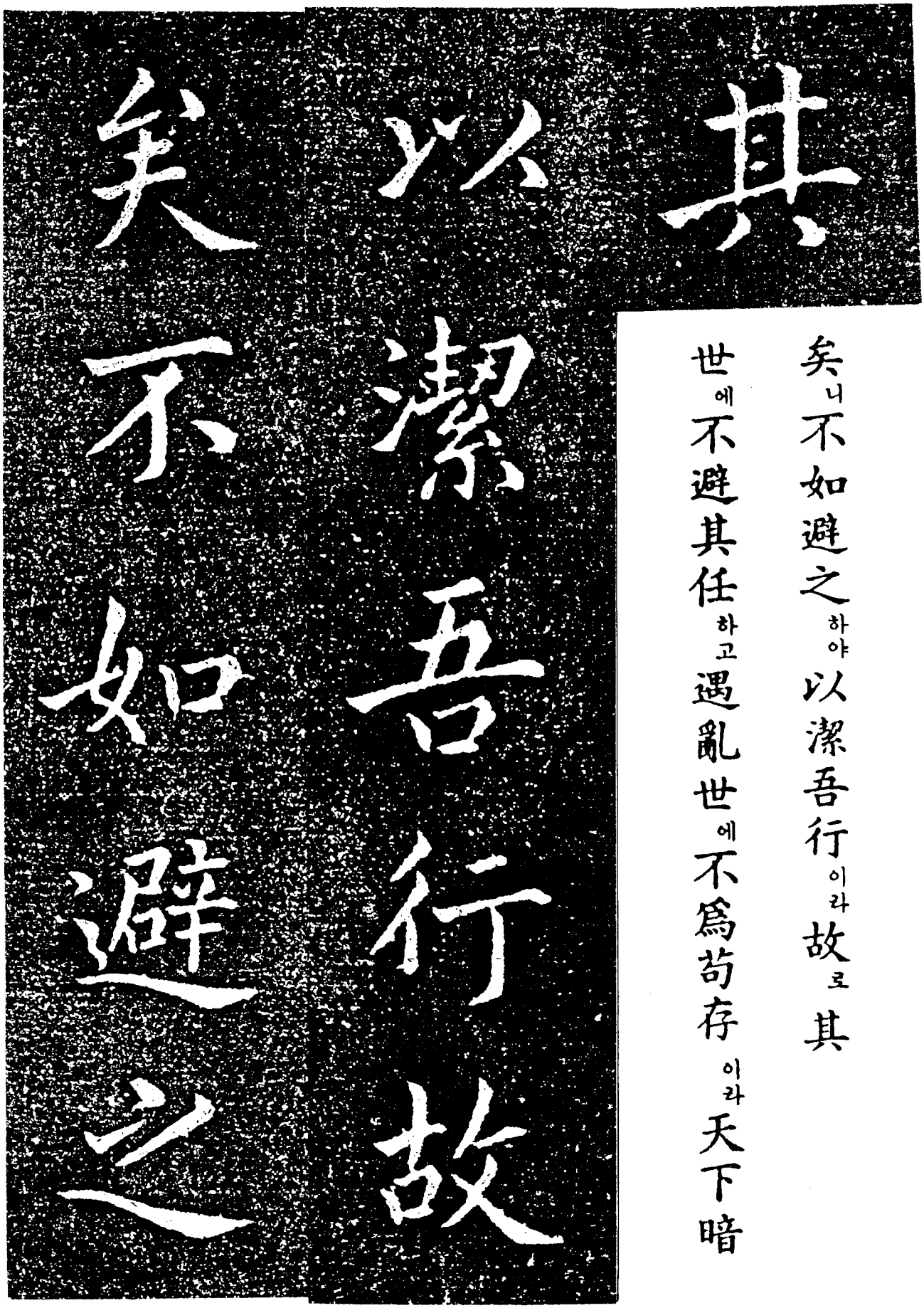
숨어 살았으니 세상을 잊지 아니하고 도를 지켜 변하지 않고 그 몸을 깨끗이 한 것이다.



伯夷의 말에, "옛날의 선비가 치세를 만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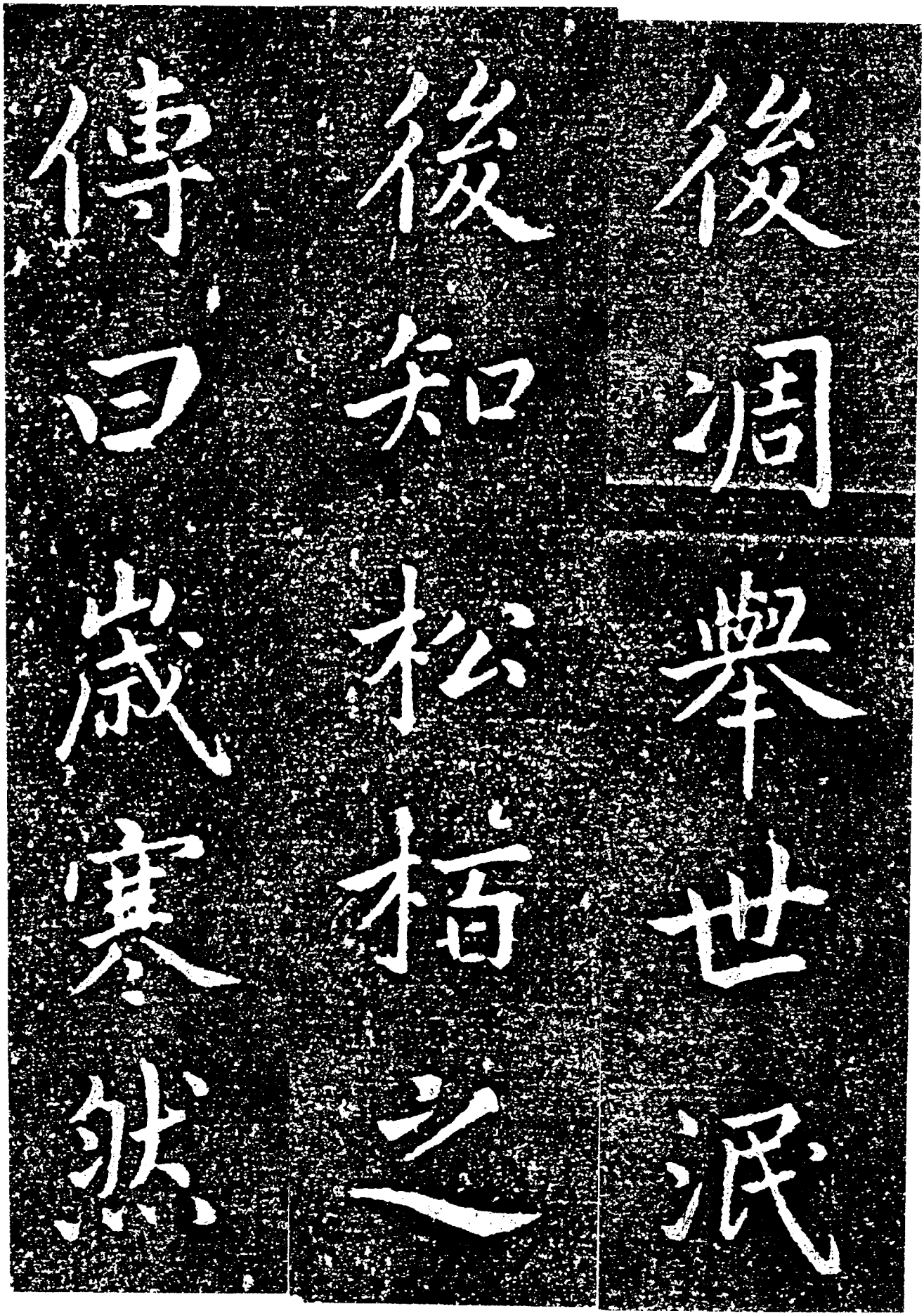


그 소임을 피하지 아니하고 난세를 만나면 구차히 살지 않는다 하였으니, 지금 천하가



矣니不如避之하야以潔吾行이라故로其
世에不避其任하고遇亂世에不爲苟存이라天下暗

道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니 이것을 피해 나를 깨끗이 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그 전하는 말에 "날이 추운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게 시들어짐을 알고,

非

孟子曰伯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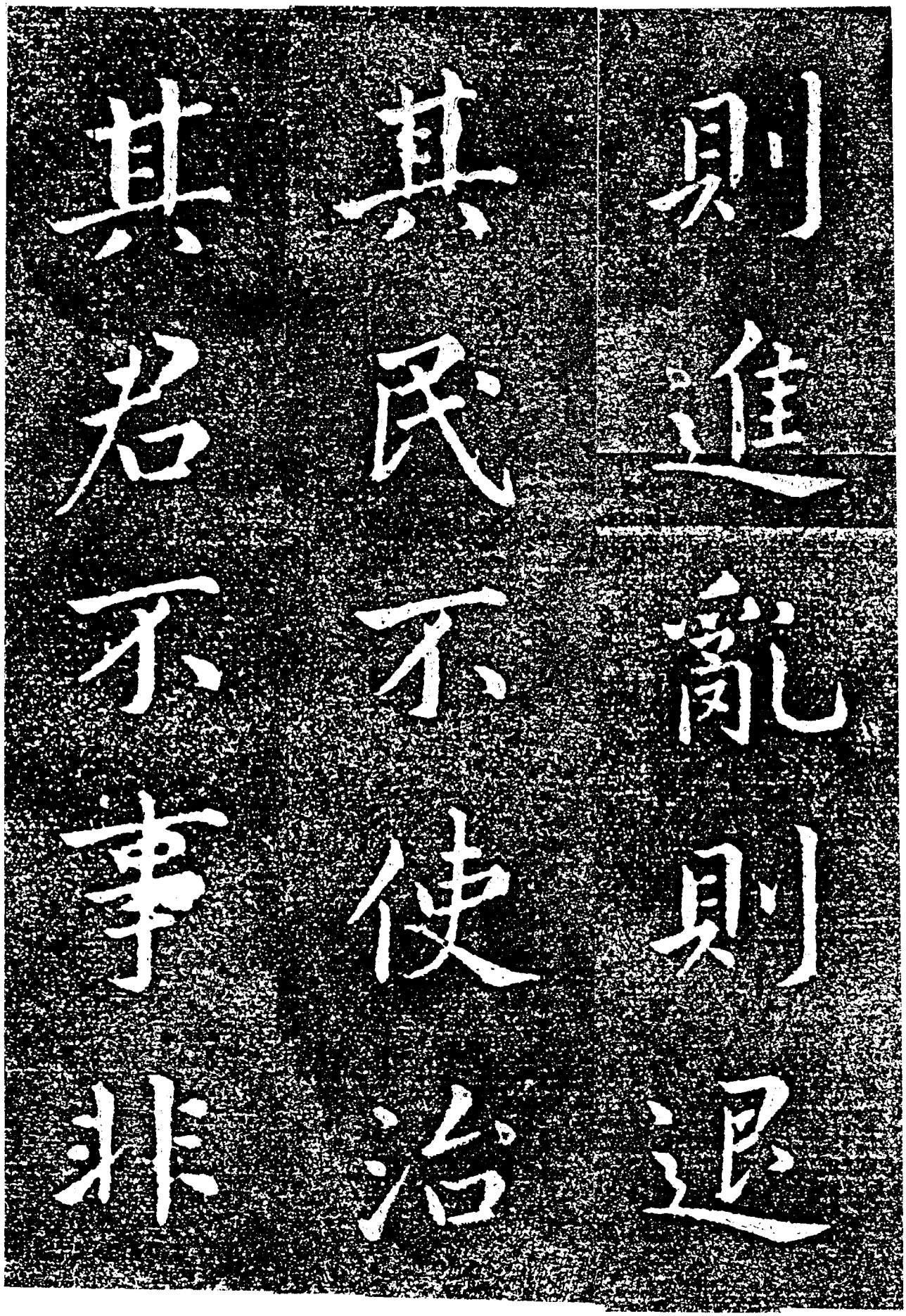
亂清士遁見

亂에 清士遁見이라 孟子曰伯夷는 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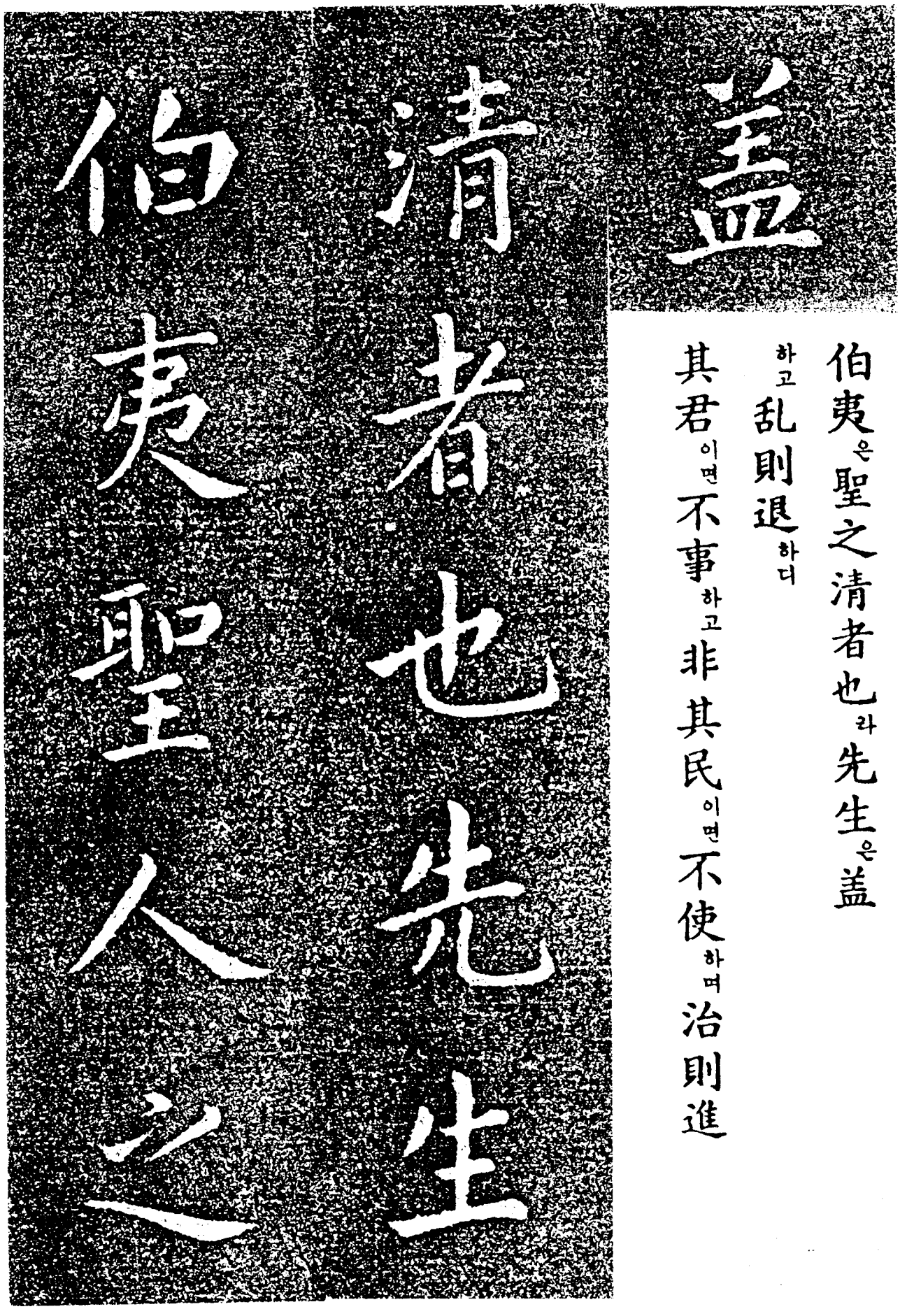
傳曰歲寒然後에 知松栢之後凋하고 擧世混

세상이 어지러울때 청백한 알아 선비를 볼 수 있다" 고 했으며, 孟子가 이르기를

, "伯夷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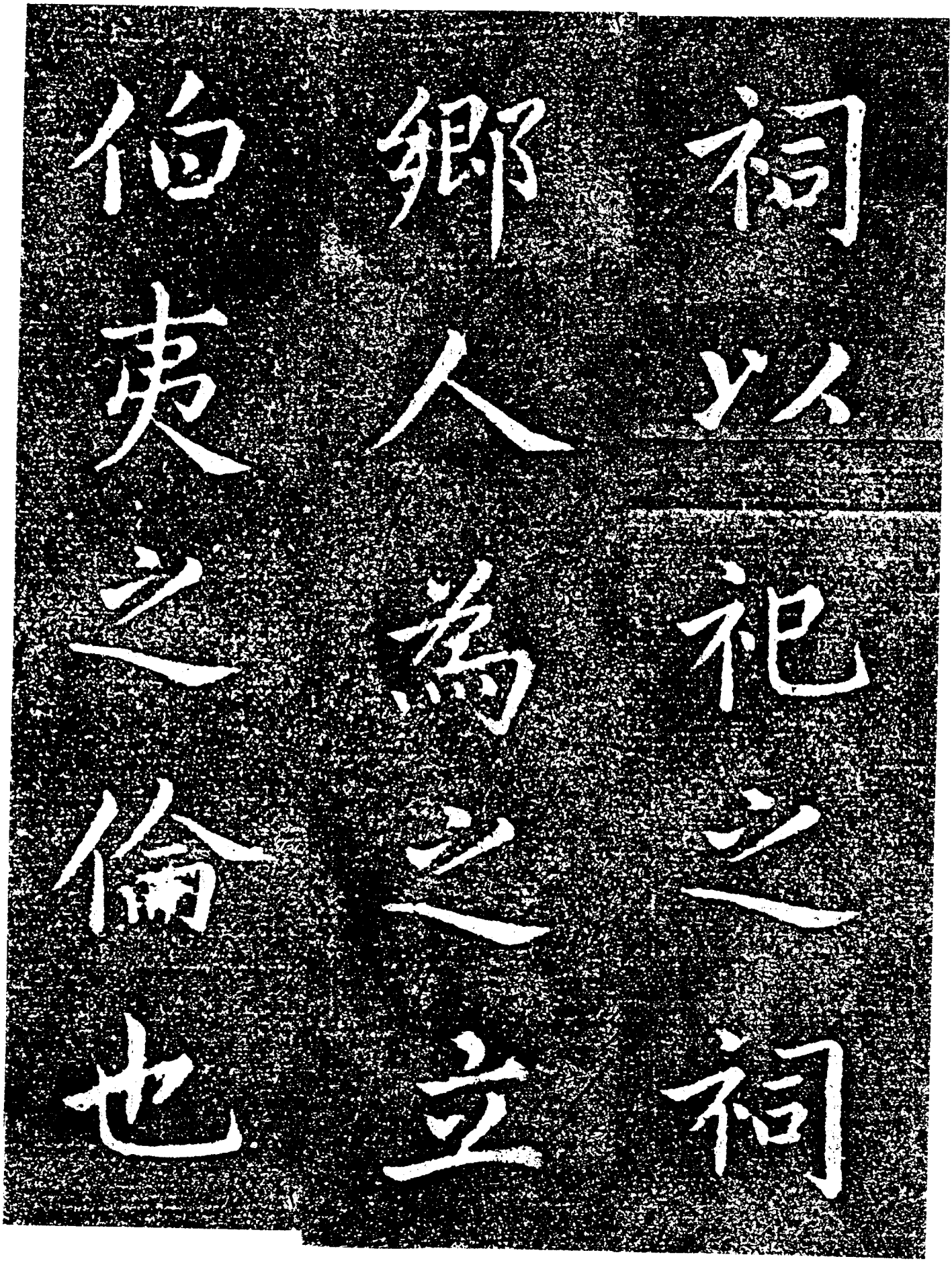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고 치세인 즉슨 나아가고 난세인 즉슨 물러났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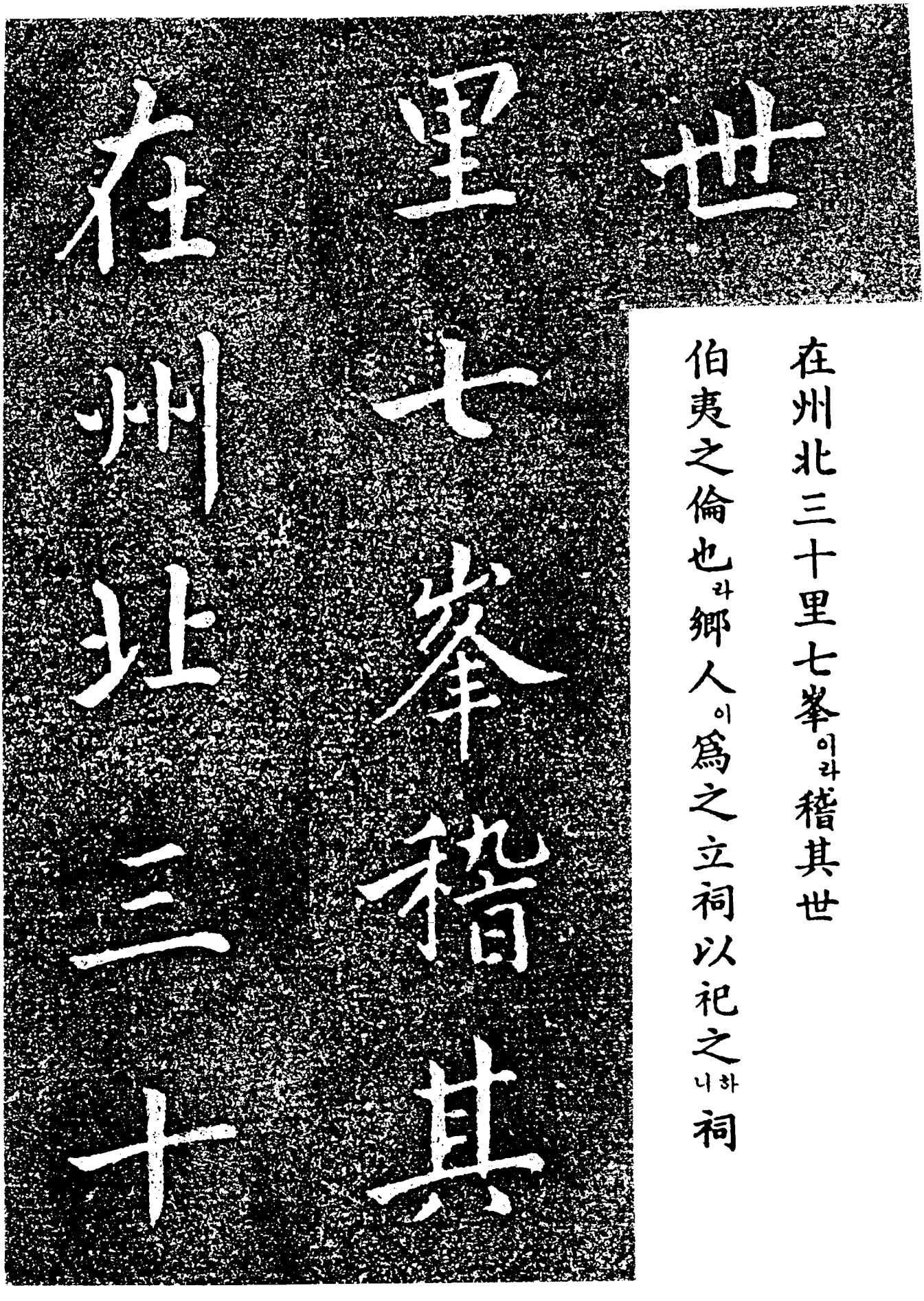


伯夷은 聖之清者也라 先生은 蓋
하고 亂則退하다
其君이면 不事하고 非其民이면 不使하며 治則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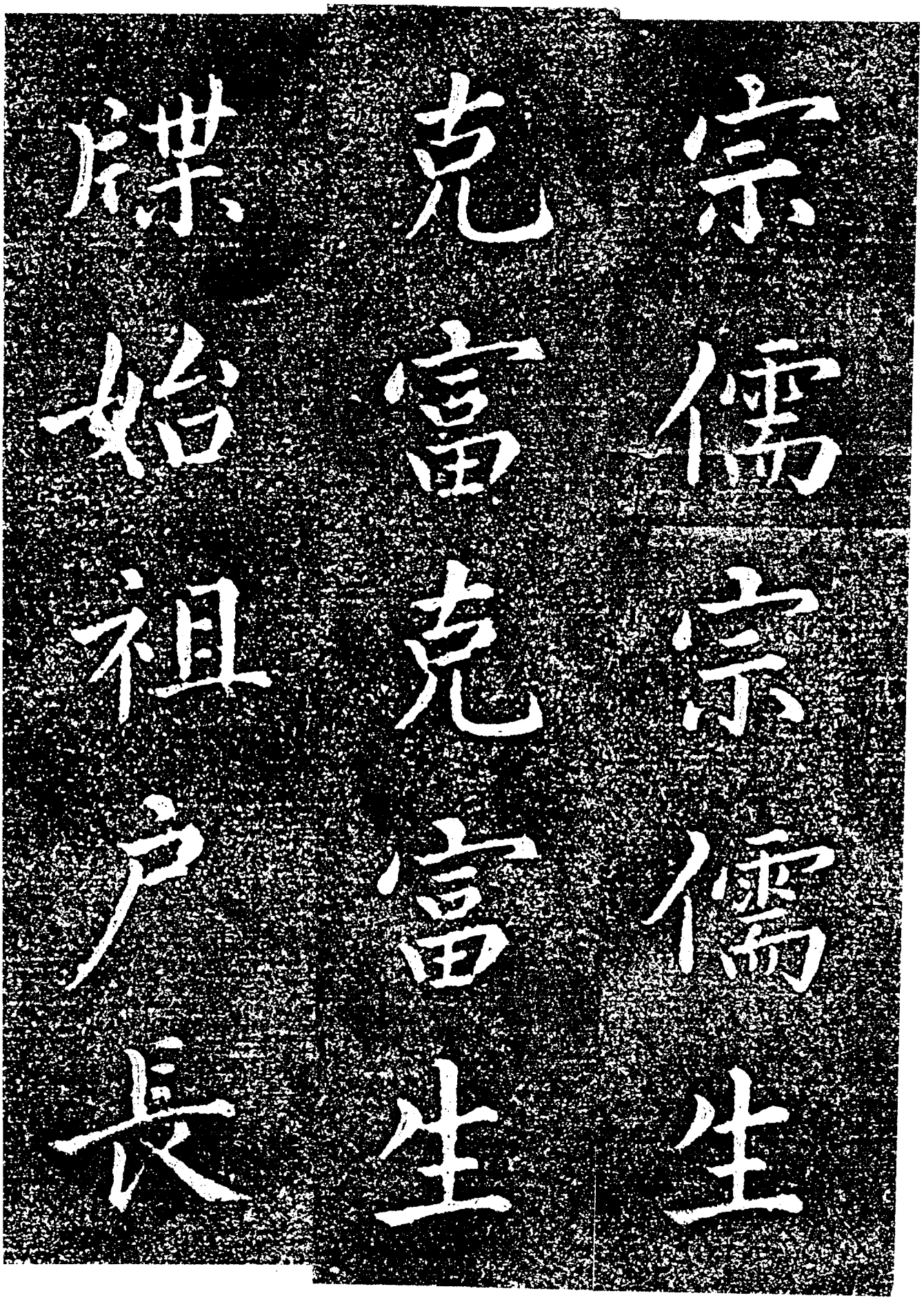
伯夷는 聖人으로 청렴한 분이다." 하였으니 선생은



伯夷와 견줄만한 분이다.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니 사당은



原州 북쪽 삼십리 七峯에 있다. 그 족보를 상고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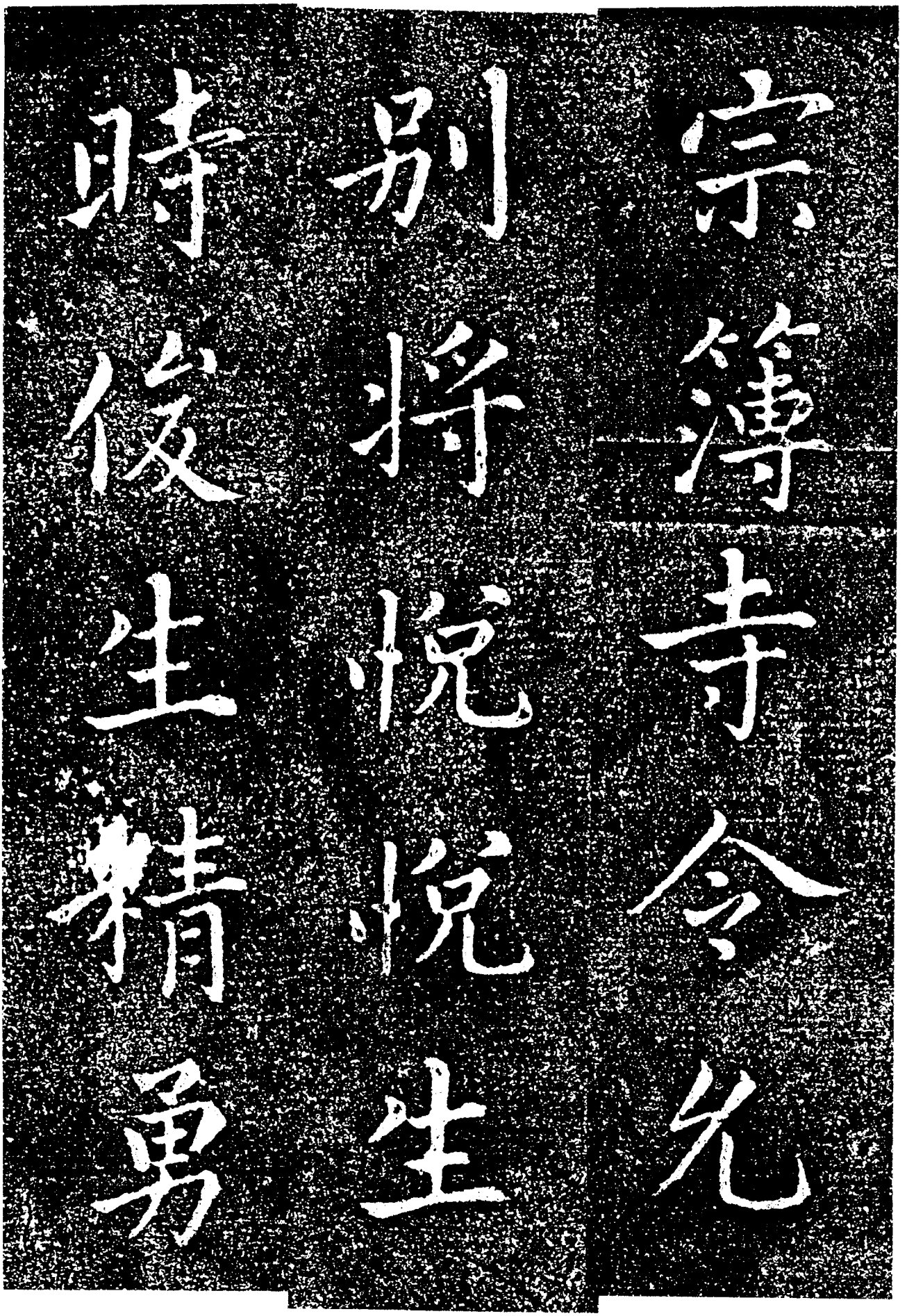
그 始祖는 戶長인 克富이고, 克富는 宗儒를 낳았고, 宗儒는

倉正寶齡하고 寶齡이 生倉正時俊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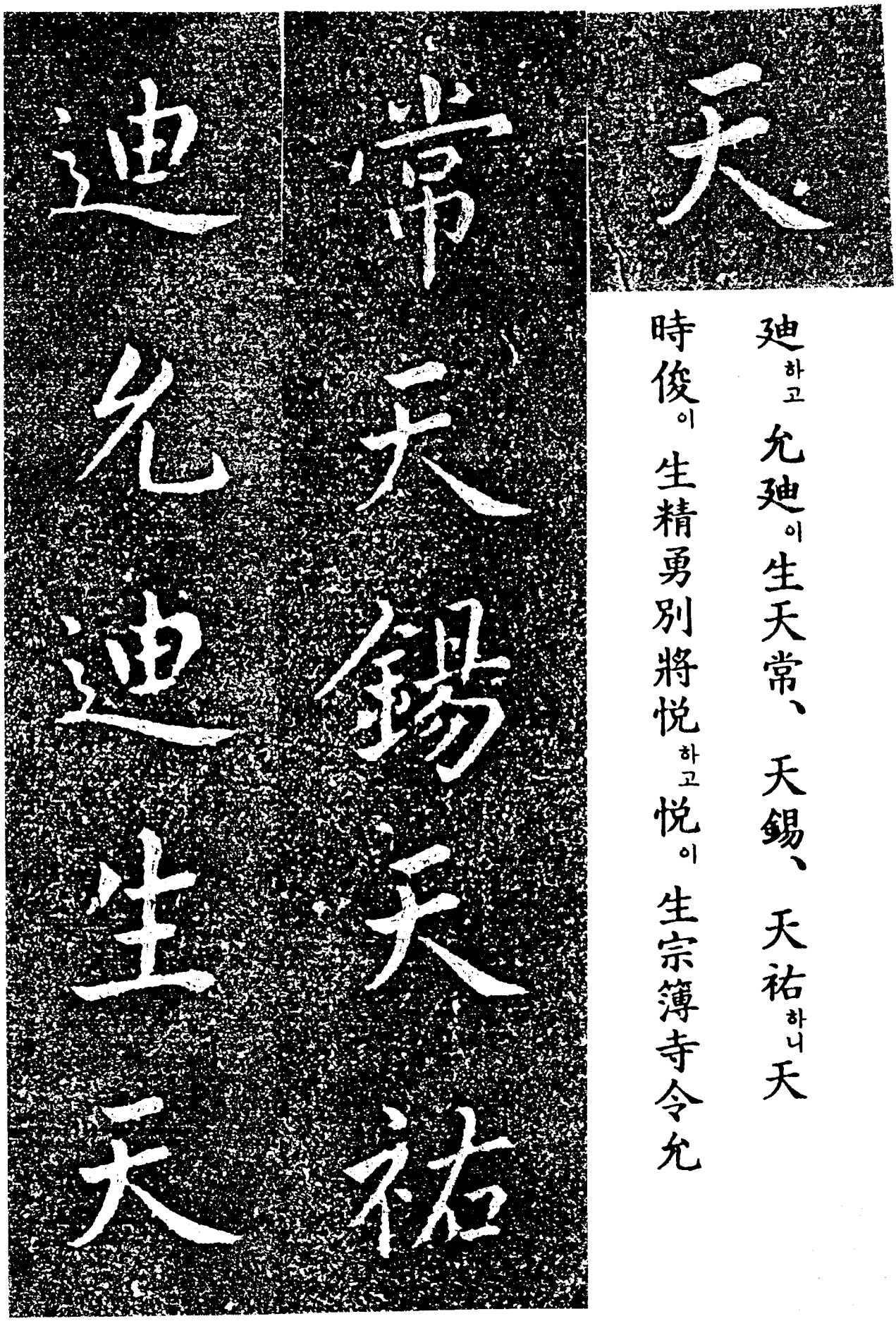
牒하니 始祖는 戶長克富라 克富生宗儒하고 宗儒生

倉正寶齡生倉正時俊

倉正인 寶齡을 낳고, 寶齡은 倉正인 時俊을 낳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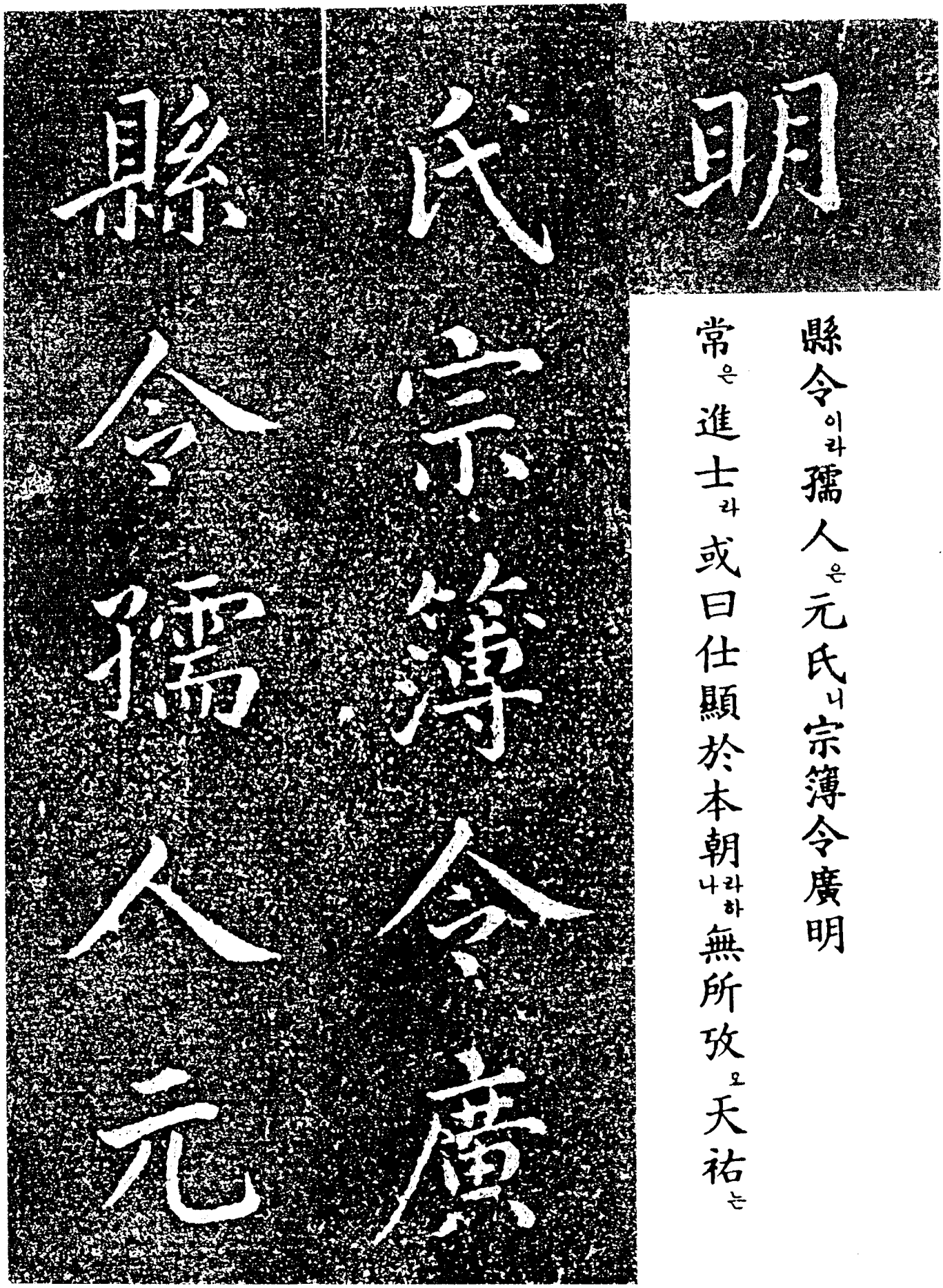
時俊은 精勇別將인 悅을 낳았고, 悅은 宗簿寺令인



迪하고 允迪이 生天常、天錫、天祐하니 天
時俊이 生精勇別將悅하고 悅이 生宗簿寺令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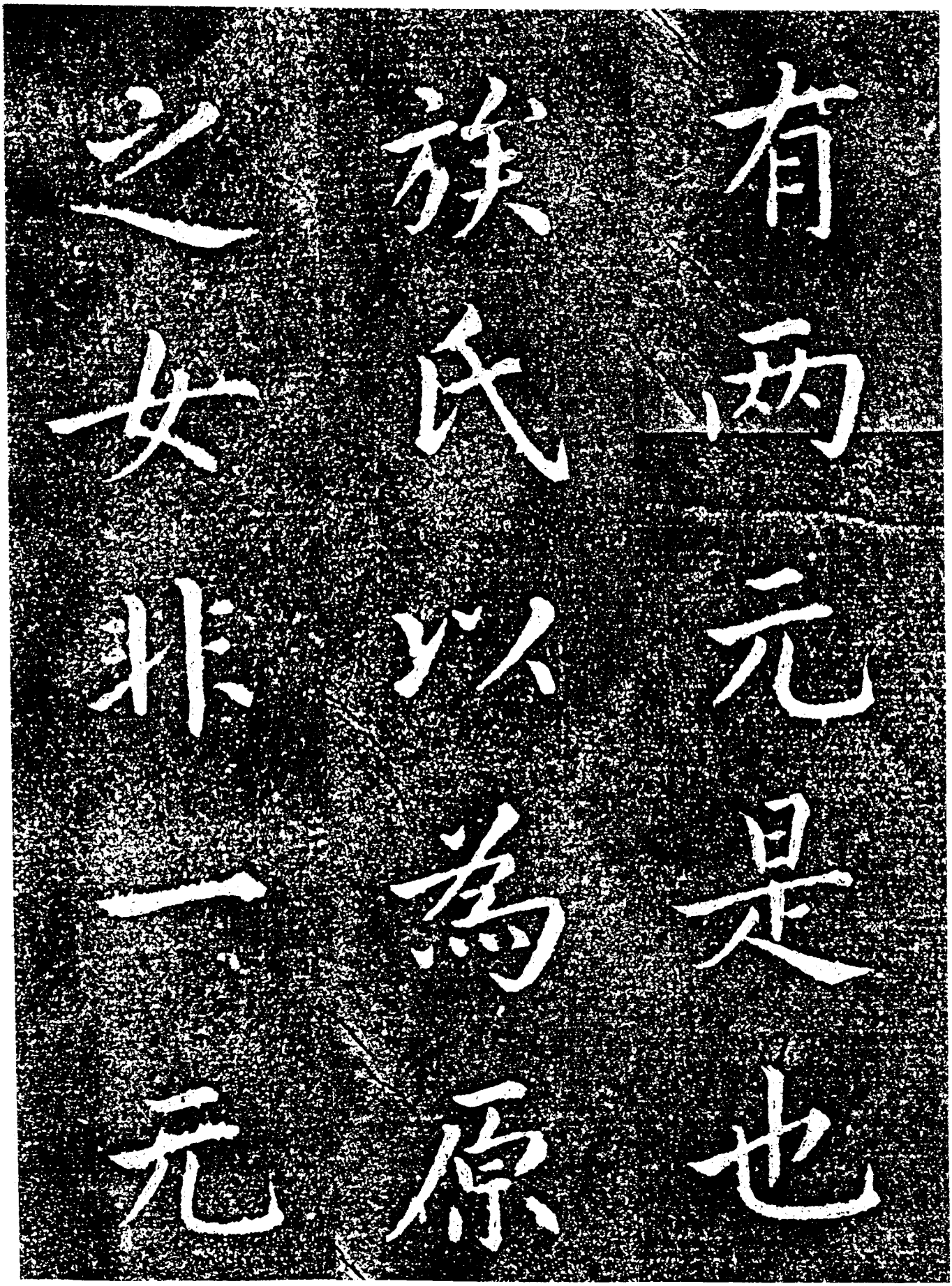
允迪을 낳았고, 允迪은 天常・天錫・天祐을 낳았으니,

天常은 進士이다. 혹 이르기를 朝鮮에 와서 벼슬하여 현달하였다고 하나 상고할 길이 없고 天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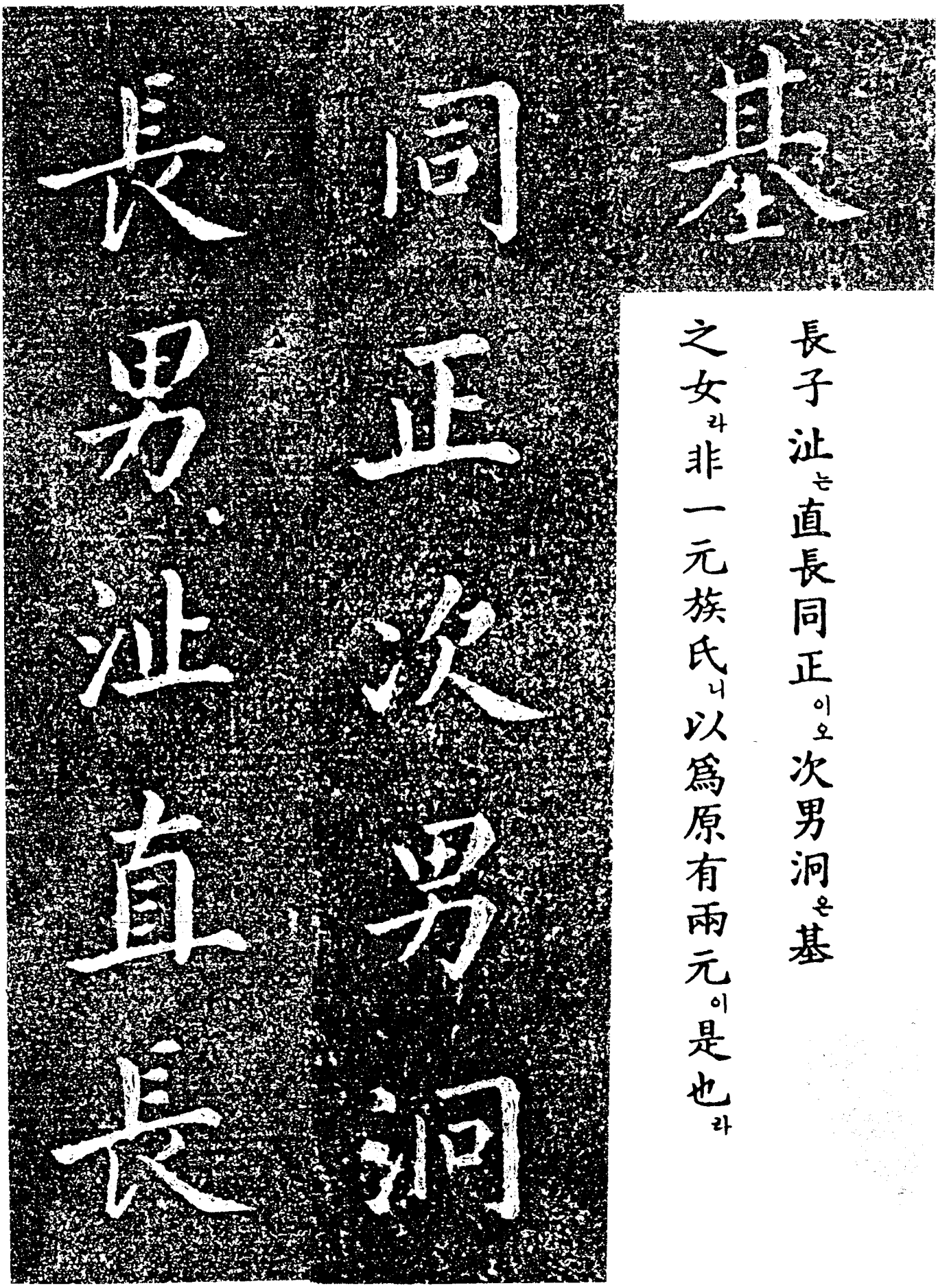


縣令이라 孺人은 元氏니 宗簿令廣明
常은 進士라 或曰仕顯於本朝나라하 無所攷오 天祐는

縣令이고, 부인은 元氏이니 宗簿令인 廣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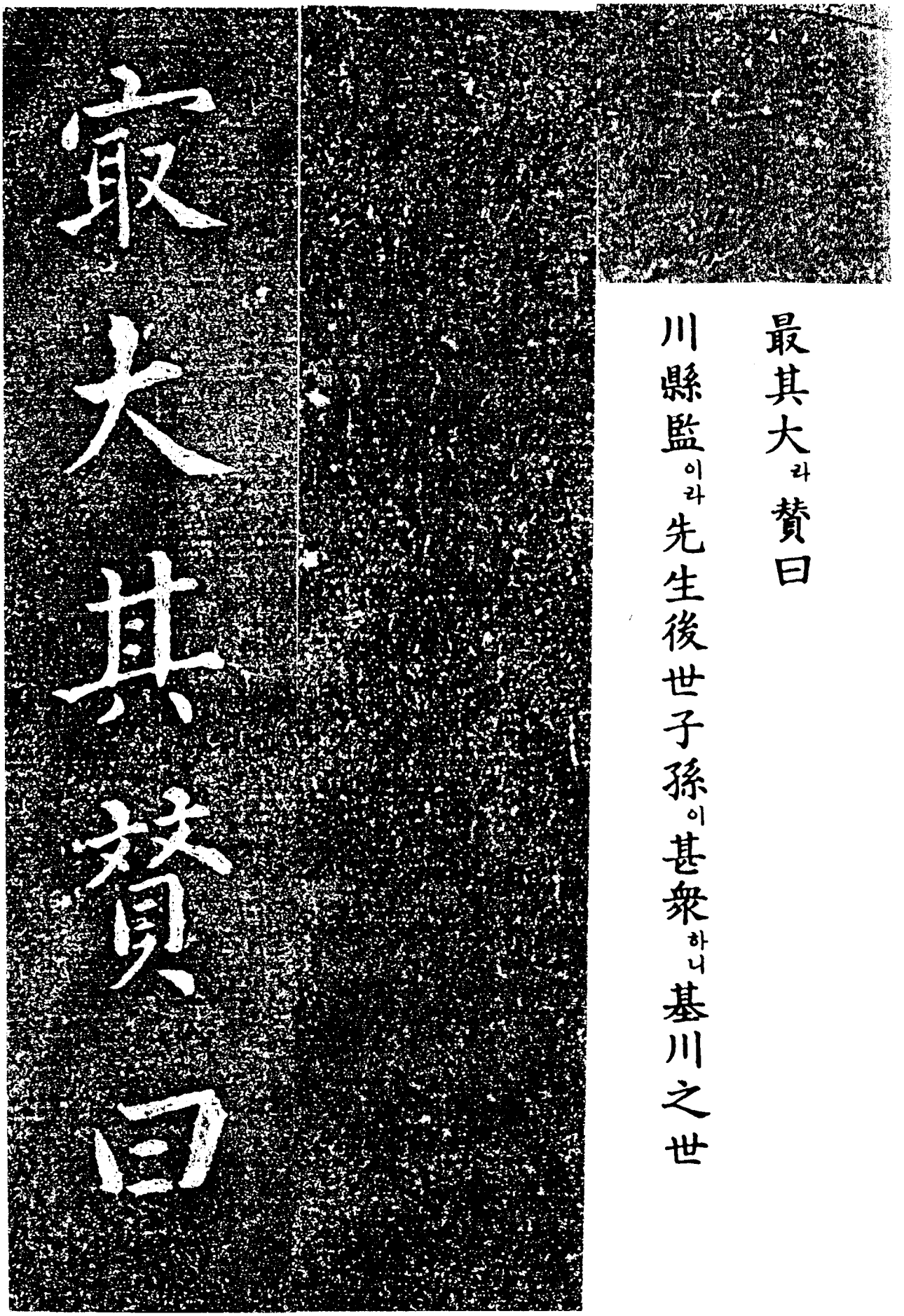


의 딸이다. 같은 元氏가 아니니 原州에 두 元氏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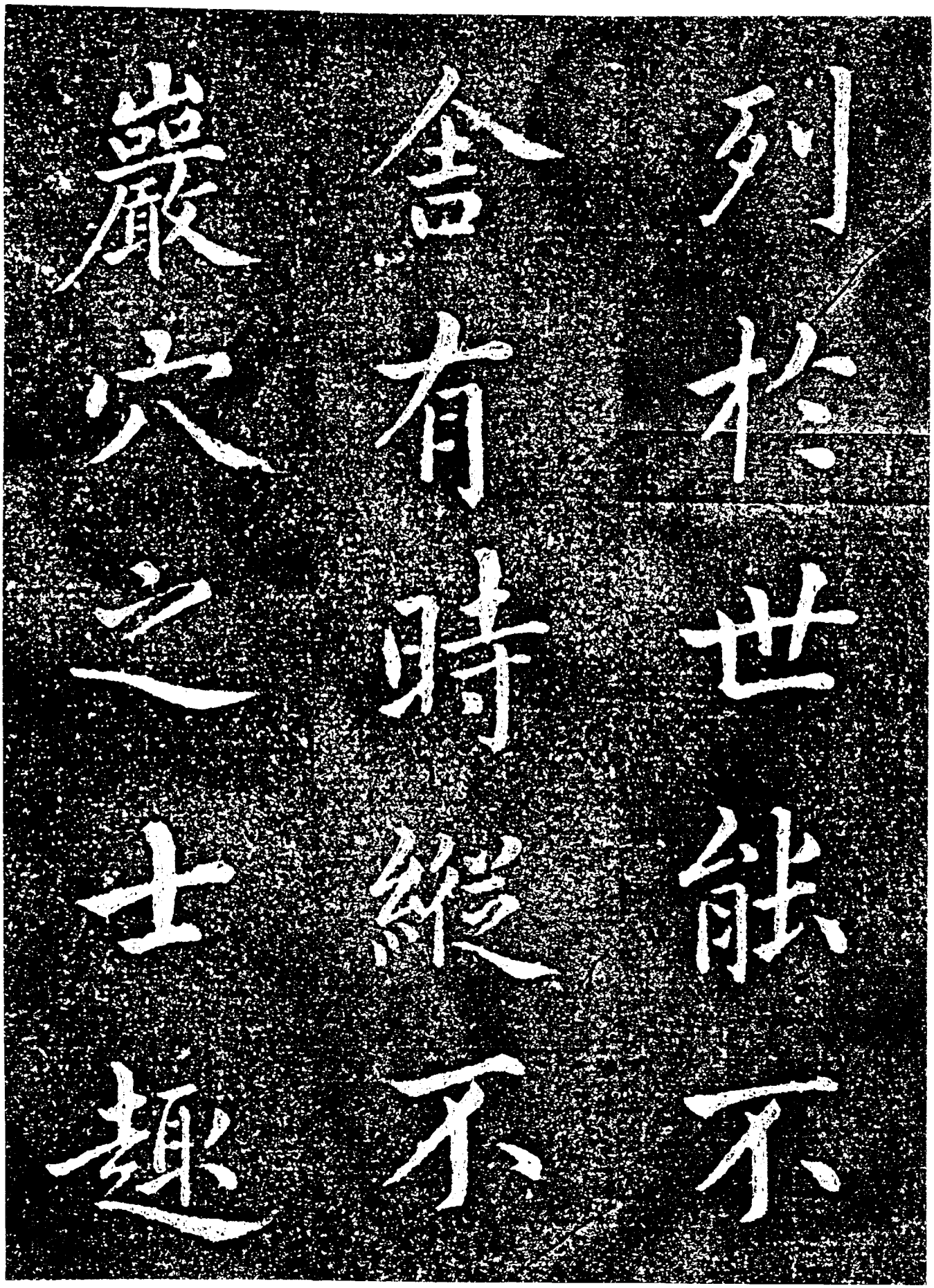


장남인 沚는 直長同正이고, 차남인 洞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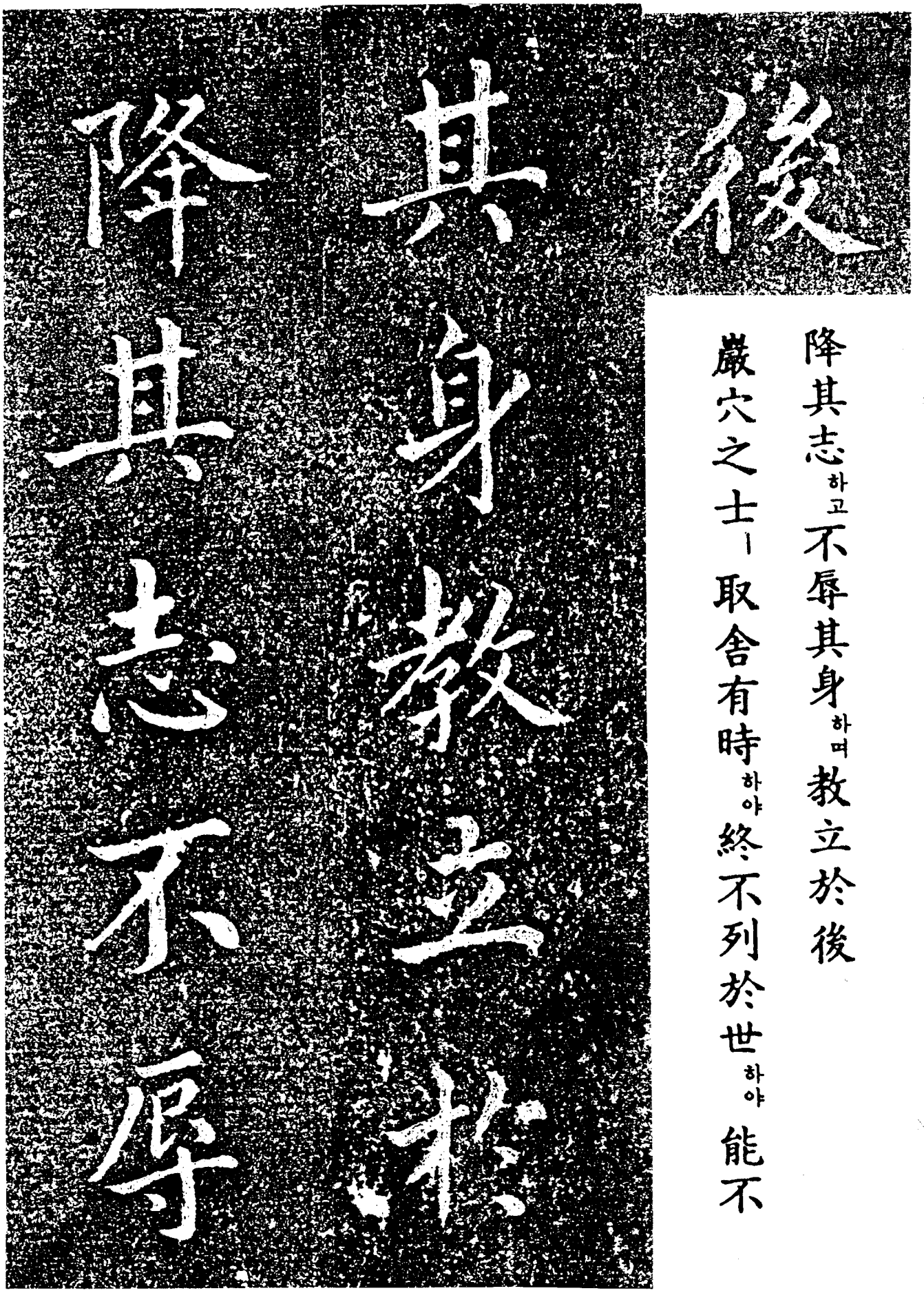
基川縣監이다. 선생의 후세 자손은 매우 많으나 基川縣監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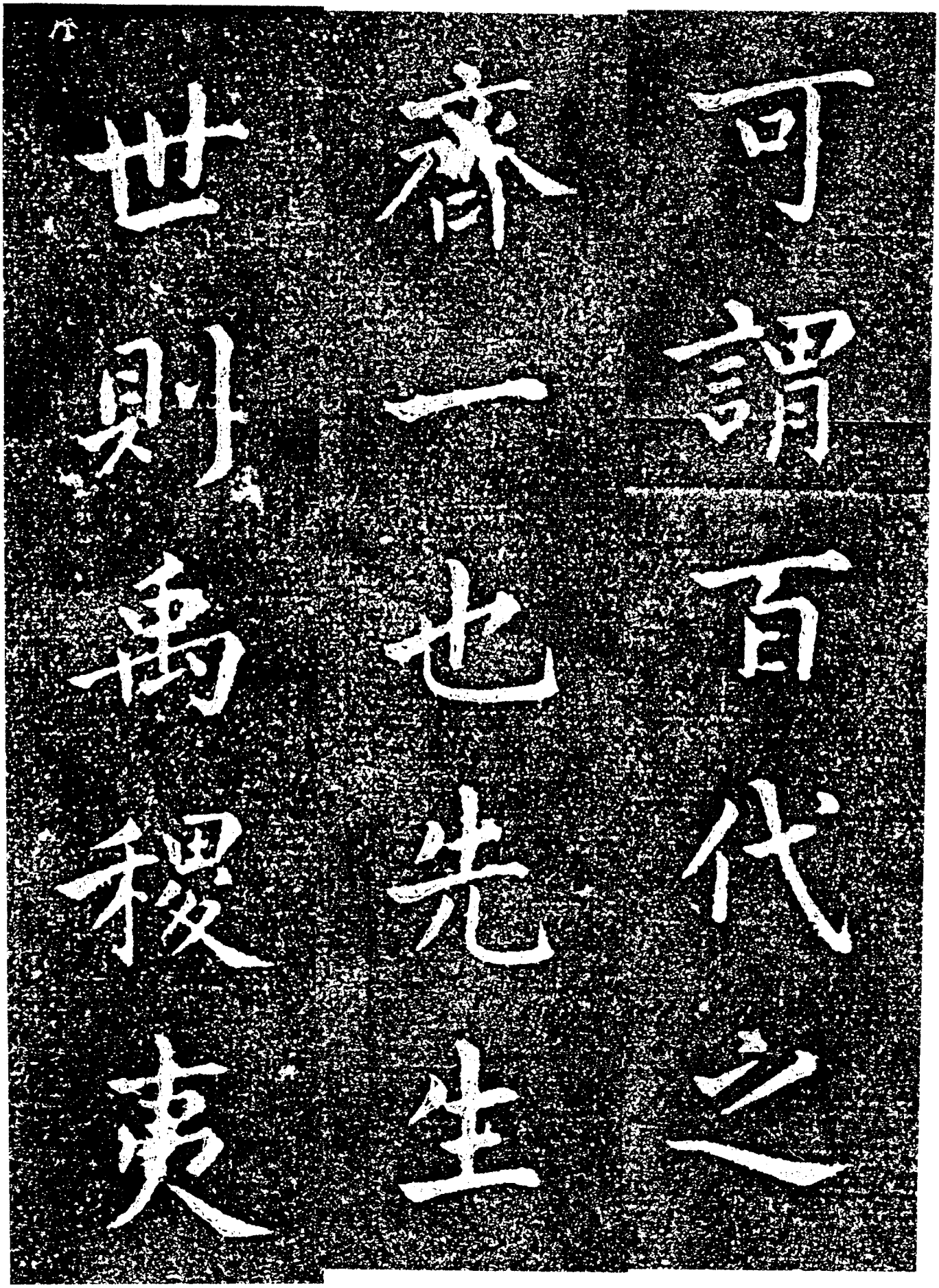
후예가 가장 많다. 贊하여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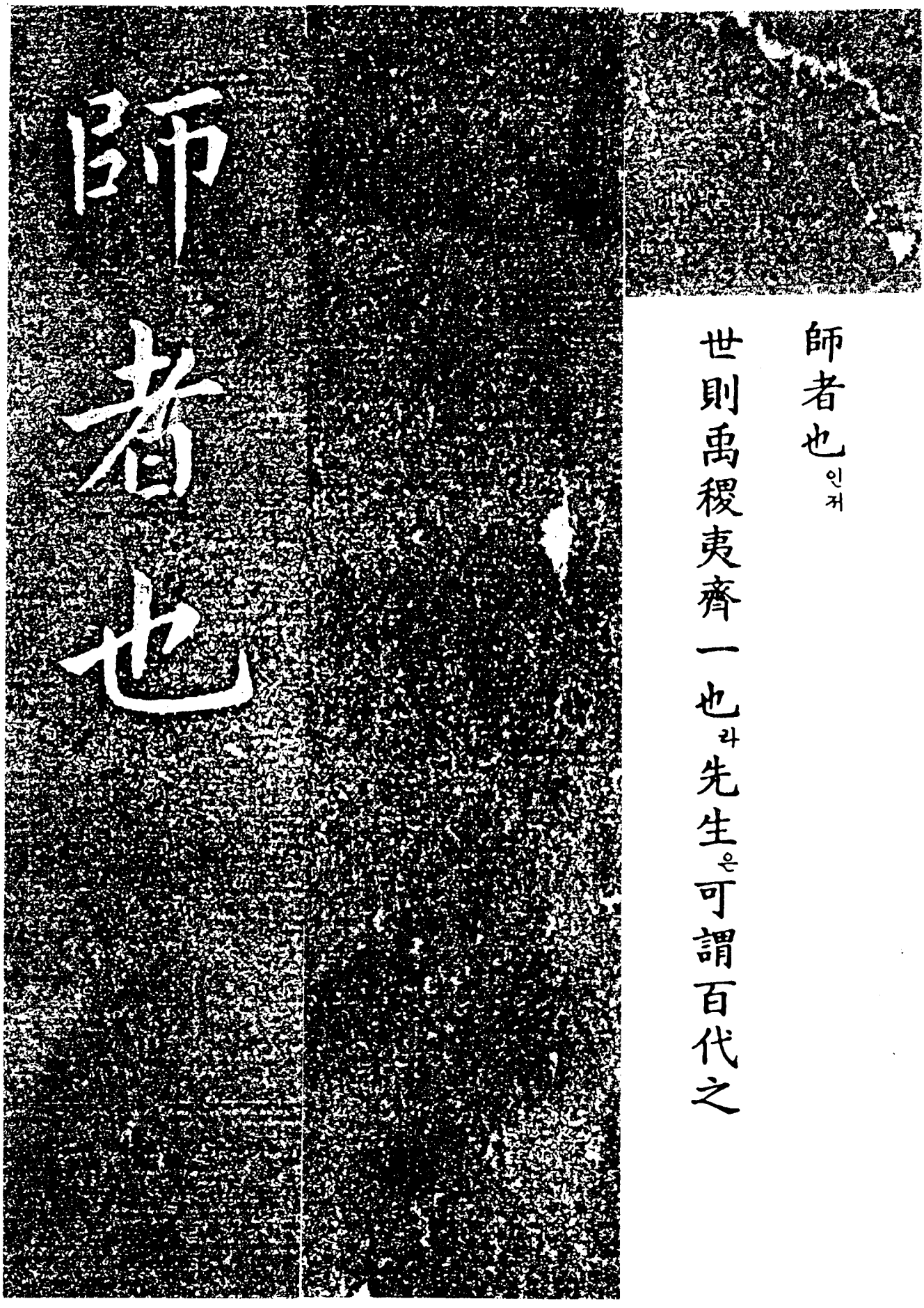
巖穴에 사는 선비도 나아가고 물러남이 때가 있다. 끝내 세상에 참여하지 않으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몸이 욕되지 않았으니 가르침을 후세에 세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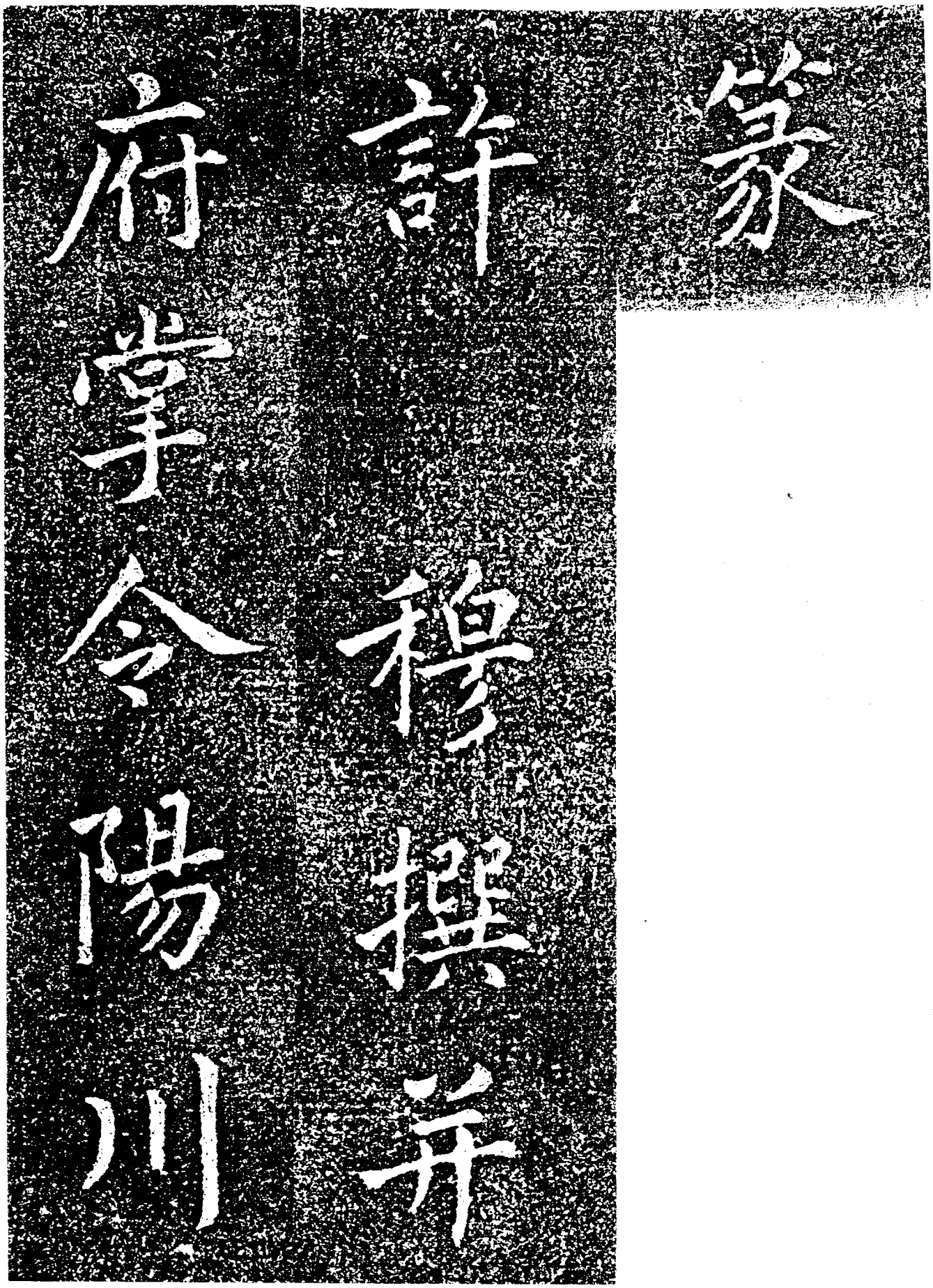


즉 禹·稷·伯夷·叔齊와 한결같으니, 先生은 백대의



스승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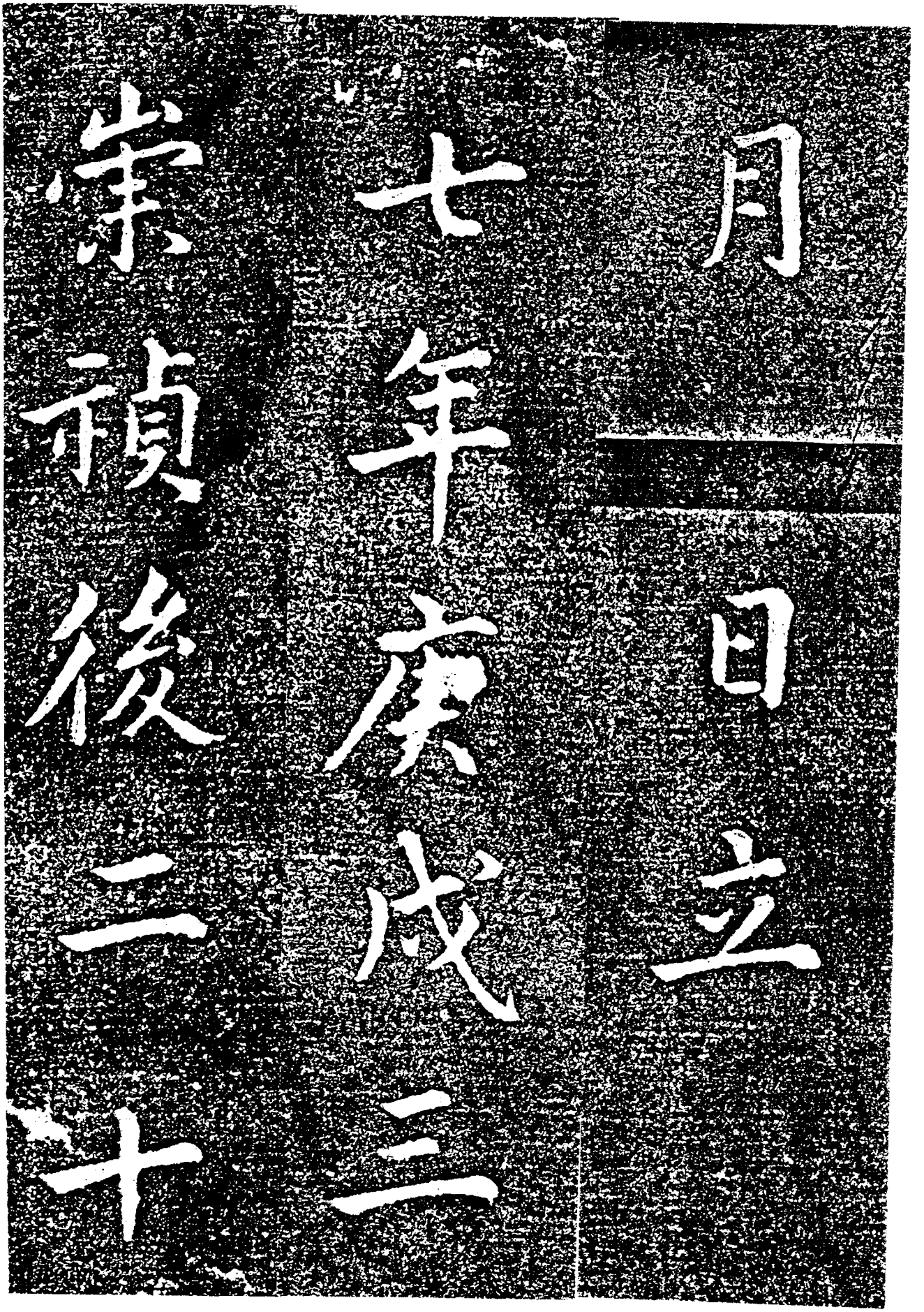
通訓大夫 前行 司憲府



掌令인 陽川 許穆이 글을 짓고 아울러 篆額을 쓰다.

外後孫인 完山

후인 李命殷이 글씨를 쓰다.



崇禎후 27년(顯宗 11年, 1670) 庚戌 3월 일에 세우다

耘谷先生의 生涯와 現實思想

半江古典硏究所 硏究委員 林 英 根

1. 耘谷의 生涯
2. 耘谷의 忠節과 現實思想
   1) 耘谷의 忠節
   2) 耘谷의 現實思想

1. 耘谷의 生涯

耘谷의 姓은 元氏요 諱는 天錫으로, 고려 佐命功臣 金紫光祿大夫 門下侍中平章事를 역임한 原州 元氏의 始祖 元鏡의 19대손이며, 고려 충숙왕 때에 宗薄寺監을 지낸 允迪의 둘째아들로 태어난 원주 원씨 중시조로써, 때는 고려 忠肅王 17년 庚午(1330)년으로 고려말기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原州元氏宗史 第1編 源分派圖)

耘谷은 어려서부터 秀才로 이름이 났었는데 成長하면서 文章과 學文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고려 말엽의 政治的 어려움을 개탄하면서 원주 雉岳山에 隱居하여 才智와 학문을 감추고 農事를 지어 어버이를 奉養하였다.

당시 耘谷의 慈堂께서는 항상 집이 가난하여 稅金을 織物로 바치기가 어려워서 耘谷에게 進士가 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耘谷은 부득이 開京으로 올라가 九齋籍을 갖고 國子監試에 응시하여 進士가 되었다. 이때 耘谷의 나이 26세 되던 해로 恭愍王[1] 4年(1355)년이다.

이것을 계기로 관로에 進出하려고 했다면 出世의 길을 갈 수도 있었겠으나 당시의 여러 시대상황이 耘谷으로 하여금 草野에 隱遁하게 하였고, 이는 朝鮮王朝 건립 후에도 不事二君의 忠節로 志操를 지키는 것으로 일관하게 된다. 더구나 耘谷은 朝鮮王朝 太宗의 어린시절에 師弟의 학연이 있었는데, 태종이 왕이된 후에 운곡을 불러 벼슬를 주려고 하였으나 치악산에 隱居해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耘谷의 志操는 가정에서도 이어져 36세되던 해에 부인과 死別하였는데 子女들의

주1)恭愍王은 (1330년(忠肅王)~1374年(恭愍王23))

高麗 31代王으로 在位 기간은 24年(1351~1374年)이다.

號는 怡齋, 益堂, 忠肅王의 子, 妃는 元의 魏王의 딸 魯國大長公主이다.

養育을 위해 續絃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후취가 들어오면 가정의 平和에 금이 갈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二十四孝의 한사람으로 유명한 민자건이 후모로 부터 심한 差別을 받았는데 그에 憤慨한 아버지가 후모를 逐出까지 하려고 했던 옛일을 耘谷은 생각했던 것이다. 子息을 위해서 자기의 感情을 희생한 高貴한 父性愛와 純粹한 人間味를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農夫가 보리 몇섬만 타작해도 소실를 둘 생각을 한다는데 스스로 혼자 생활하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지켜보며 人生의 孤獨을 달래는 그의 人品, 용광로로도 녹일 수 없었던 그의 氣魄에 또한 이렇듯 절실한 인간상을 우리는 耘谷에서 발견 할수 있다.(金鍾武, "耘谷先生－그의 人物과 文學" 參照,『耘谷元天錫詩史』原州元氏譜所. 1984, 參照)

이러한 가운데 易東 禹倬[2)]의 弟子로 鄭夢周을 비롯한 李穡 등 高麗末의 여러 儒學者의 스승인 申賢[3)]의 文籍이 強制로 燒却당하는 화을 당하자 포은 정몽주는 신현의 사적을 收集하여 밤중에 雉岳山에 隱居하는 耘谷에게 보내 秘藏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에 耘谷이 所重한 事蹟을 後世에 전할 莫重한 任務을 갖고 高麗末 朝鮮朝 격변기에 伏涯范世東과 더불어 포은 등에 보낸 資料와 기타 收集한 신현의 事蹟을 편집하여 『華海師全』[4)]을 著述하여 한질씩 所藏하게 된다.

耘谷의 著書로는 野史 6권과 詩集 5권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 野史 6권은 後孫이 멸문을 두려워하여 燒却하여 전하지않고 詩集은 그가 20세 되던 해인 충숙왕 3년부터 朝鮮太祖 3년까지 약 44년간 읊었던 시를 編年으로 配列하여 3권 2책으로 만든것이 原形인데 후에 耘谷의 後孫이 다시 5권 3책으로 再編하여 總數 1140수에 이른다.

그의 몰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朝鮮太宗이 上王이 되어서 만나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90여세를 壽한 것으로 보인다.

2. 耘谷의 忠節과 現實思想

1)耘谷의 忠節

耘谷이 태어나던 時期는 高麗末의 혼란스러운 시기로 元나라에 의해 王朝가 좌지우지 되

주2) 禹倬은 1263年(元宗4)～1342年(忠惠王 復位3) 高麗學者, 字는 天章, 卓甫, 號는 易東

주3) 申賢은 1298年(忠烈王24)～1377年(우왕3) 高麗學者, 字는 信敬 平山人, 고려 개국공신 申崇謙의 後孫

주4) 현재 화해사전은 1920년 6월 발행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목판인쇄본과 1931년 발간된 활자본이 있는데 각기 序文 작성자가 다르고(전자는 李明植, 후자는 姜永直), 책의 편제(전자는 7권 3책. 후자는 4권 2책)나 목차등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점에서 이 책이 후인의 杜撰이거나 僞書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던 시기였다. 한때 元의 기반에서 벗어나 다시금 國運을 上昇 시킬수도 있었으나 恭愍王이 즉위 13년만에 弑害를 당하는 바람에 霧散되고 우왕 14년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있은 후 창왕·공양왕을 거쳐 고려말이 끝나게 되자, 이해가 耘谷의 回甲 다음 해로서 결국 운곡은 고려말기에 육십평생을 보내고 조선조에서 나머지를 보내게 된다.

王朝의 變革이라는 歷史的 重大한 轉換幾의 混亂스러운 狀況에서 處身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써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기 쉽상이고 잘하면 開國功臣의 榮華를 누릴수 있는 시기였다.

더위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耘谷은 太宗과의 밀접한 관계로 官職을 내리려는 태종의 뜻을 여러번 거절하며 피하여 만나지 않는다. 이는 고려조에서 三隱으로 歷史에 남은 圃隱과 牧隱은 대관을 지냈으니 말할것도 없거니와 冶隱 吉再도 門下省의 注書로 七品職을 지냈으니 不事二君의 처사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고려조에서 일개 進士 정도로 벼슬이라고 볼 수 없던 운곡의 志操와 높은 절개는 三隱에 비해 훨씬 고고하겠다 하겠다.

中國의 忠節로 소문난 이로 伯夷叔齊를 꼽는데 이들 역시 二臣我君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무왕이 天下을 평정하자 首陽山에 들어가 숨어살다가 餓死하였으니 당연히 그 절개는 推仰해야 하지만 그들은 孤竹君의 王子로써 지배층의 사람으로 당연한 면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耘谷의 고려조에 대한 志操와 衷情은 그가 남긴 여러 시문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그의 時調중에,

興亡이 流水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이 牧笛에 부쳤으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라는, 「懷古歌」는 고려조에 대한 비한에 찬 마음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수있다.

이러한 耘谷은 金若時·李養中·范世東·李千善·金三近 등 30여명과 더불어 해마다 春秋로 치악산 마루의 바위에 祭壇을 만들고 列聖祖와 우왕·창왕·공양왕 등과 道德으로 推仰되거나 절개를 지킨 선비들을 配享하여 祭祀하였다.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杜門洞 72賢들로써 새로 개창된 조선왕조에서 臣僕이 되기를 거절하고 절개을 지키며 무너져가는 天地의 氣象을 바로 세우고 떳떳한 人倫을 밝히기로 뜻을 같이한 선비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耘谷의 忠節은 三隱이나 伯夷叔齊 이상으로 潔白하고 玲瓏하게 일생을 마친 耘谷만의 魂이라 하겠다.

2)耘谷의 現實思想

耘谷은 세상을 등지고 隱居하는 길을 택하였지만 미수 허목은 "君子은 숨어살아도 세상을 저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先生은 비록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지만 세상을 잊은분이 아니었다. 변함없이 道을 지켜 그몸을 깨끗이 하였다." 라고, 운곡을 이야기 하였다.

耘谷은 臣下로써 갖추어야 할 德行으로 義·智·勇·忠을 強調하였으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의 德目으로 淸廉·正直·公平·謹勤 등을 強調하였다.

이러한 耘谷의 여러 思想과 現實을 바라보는 觀點은 그가 남긴 훌륭한 文學作品에 나타나 있는데 몇가지 작품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高麗王朝의 沒落을 초래하는 主要原因중에 大土地兼秉으로 사회경제적 혼란을 들수 있는데, 『耘谷詩史』를 보면 당시 耘谷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너진 집에 새들만 지저귀니
백성은 도망가고 아전도 보이지 않네
해마다 민폐만 더했거늘
어느날 어느때 즐겁게 지냈으랴
토지란 토지 권문가에 빼앗겼는데도
포악한 무리들은 문앞에 연이었네
묻노니 이 고생 누구의 허물인고
남아 있는 주민들 더욱 가엽어라

이와같이 當時의 狀況을 읊어 대토지겸병으로 인해 生活의 安定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歎息하고 그러한 事態을 매우 深刻히 認識하고 있었다.

내적인 대토지겸병과 외적으로 또한 紅巾賊에 의해 공민왕 10년에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까지 침입당하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 高麗에 대한 掠奪과 侵入으로 백성은 더욱 피폐해지고 經濟는 破綻에 이르는 등 공민왕대에 추진되는 改革政治에 대해 부정적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당시의 紅巾賊에 의한 狀況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온 땅에 둘린 풍진이 작년보다 거세니
사방 어디엔들 시끄럽지 않으랴
우리나라 터전이 반석처럼 견고하다면
하느님이 이백성들을 편히 잠들게 하실텐데

사람들 저마다 새해 온 줄도 모르니
일에 미쳐 고생하는것 얼마나 애처럽나
세상 따라 살아감이 남아의 일이라면
편히 잠들곳 없을까 봐 걱정하지 않겠건만

이와같은 耘谷의 作品으로 볼때 그는 대토지사유제를 反對하는 立場을 취하는 한편 高麗의 어지러움이 하루빨리 回復되어 國家秩序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즉 王朝自體의 變化보다는 高麗王朝를 인정하면서 그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崔瑩 등과 같은 온건 改革主義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王朝 自體의 變化을 바라는 이성계 등의 급진개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왕 14년 위화도回軍을 두고 耘谷이 읊은 詩에 나타나는데 回軍에 대한 그의 입장, 崔瑩에 대한 認識 및 요동정벌론에 대한 그의 認識態度를 알려준다.

용감한 군대 십여만이
압록강을 건너려 하여
바야흐로 요해의 길에 있는데
씩씩한 기운이 깃발 위에 떠있네
우위을 중원에 떨치면
누가 감히 외복치 않으리오
응당 개선하는날
사이가 모두 부속하리라
임금의 수명은 무강하여
주무왕의 발꿈치를 이어 밟으리
내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더불어 태평곡을 부르리라
어찌 강을 건너지 않고
분연히 말고삐를 돌리는가
가련한 도통곡은 홀로 원함을 사고 있네
주춧돌이 이미 위태로우니
장차 큰짐을 어찌 지탱할까

이 시에서 耘谷은 요동정벌 計劃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당대 知識人들의 正統思想이나 華夷思想과는 달리 그가 최영의 요동정벌론을 찬성한것은 최영이 매우 淸廉剛直하고

오직 나라에 忠誠한다는 確固한 信念을 가진 人物로 널리 알려졌고 高麗王朝의 國家秩序를 回復시키기 위하여 최영을 나라의 주춧돌로 社稷을 안정케 할수있는 人物로 여기고 있었던 점과 崔瑩과 마찬가지인 남의 領土을 빼앗으려는 侵略의 野慾을 民族의 自尊心으로 도저히 容納할수 없었던 것으로 요동정벌론을 찬성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렇듯 高麗王朝에 대한 절의가 확고한 耘谷이었으나 朝鮮王朝成立過程에서 보이는 그의 態度, 太宗과의 관계, 만년에 太宗에 의한 그의 아들의 조선정계로의 進出 등은 耘谷이 朝鮮王朝 自體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자신은 高麗王朝와 함께 절의을 지켜 隱遁해 버렸으나 大勢의 論理에 따르는 불가피한 現實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천명과 인심은 덕있는 곳으로 돌아가니
새 왕조의 공은 하루 아침 사이에 있었네

라는, 시에서 살필 수 있듯이, 君主가 정을 베풀지 않아 民心을 잃게되면 天命과 人心은 바뀌어 君主도 바뀔수 있다는 易姓革命의 理論에 同調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急變하는 狀況은 耘谷으로 하여금 많은 葛藤을 겪게끔 하지만 그 자신은 高麗王朝에 대한 절의를 지켰는데 『耘谷詩史』에서 보면, 高麗王朝 우왕 이전의 高麗王朝에 대해서는 國으로 그 이후 朝鮮王朝에 들어서는 新國으로 表現하고 있는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朝鮮王朝에 대한 確實한 態度는 明白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耘谷은 現實에 急激한 變化보다는 온건적인 改革를 바라는 온건改革主義者로 볼 수 있으며 보다 重要한 것은 人心, 즉 民心을 상당히 重視하여 民心을 根本으로 보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原州元氏　中央宗親會,『耘谷元天錫詩史』1984

李恒植,『華海師全』栗里祠, 1920

原州郡,『原州地方書院學術調査報告書』, 1992

原州文化院鄕土誌編纂委員會,『原州・原城鄕土誌』, 1976

原州文化院,『元耘谷居義』1990

金鍾武,「耘谷先生 ― 그의 人物과 文學 ―」『耘谷元天錫時史』, 1984

柳桂姬,「元天錫硏究」『수촌 박영석교수 회갑기념 韓國史學論叢』, 1992

半江古典硏究所長 : 金 鎬 吉

■ 강원 원주 출생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유교경전학과 수료
■ 한국불교통신대학 대학원 재학
■ ROTC1기 예비역 중위
■ 사단법인 국민문화연구소 이사
부설 고전간행회 회장
부설 서도회 부회장
■ 전국농촌운동자협의회 부회장
■ 철원지역 민통선북방 향군농장
경작자 대표위원
■ 원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 원주얼심기협의회 연구위원
■ 대성학원 부설 향토문화관 연구위원
■ 원주문화원 서당 개설 6년 강의
■ 원주 향토문화상 수상(1986년)
■ 강원도 문화상 수상(1989년)
■ '77년이후 MBC • KBS 향토순례 담당 출연
■ '94년 KBS 김호길의 향토기행 출연중
■ 대성고등학교 한문 교사(현)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56－18(761－2509)

半江古典硏究所副所長 : 朴 文 成

■ 강원 원주 출생
■ 원주고등학교 졸업
■ 상지대학교 졸업
■ 원주교육청 근무(현)
■ 원주시 명륜동 현대1차APT 103동 302호
(43－9962)

同 硏究委員 : 林 英 根

■ 강원 원주 출생
■ 진광고등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사학과 졸업
■ 원주시 봉산2동 14/3 1145－4(48－5019)

同 書藝學硏究室長 : 蔡 熙 昇

■ 강원 원주 출생
■ 대성고등학교 졸업
■ 상지대학교 졸업
■ 원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 대성학원 부설 향토문화관 연구위원
■ 횡성서예학원장(현) (0372)42－6000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태우APT 1동 906호 (43－9060)

同 金石學硏究室長 : 金 成 讚

■ 강원 원주 출생
■ 대성고등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 동 대학원 사학과 졸업
■ 원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 대성학원 부설 향토문화관 연구위원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원(현)
■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380－20(42－5896)

同 硏究委員 : 慶 壽 顯

■ 강원 원주 출생
■ 진광고등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 YMCA향토사연구회 회장
■ 다손기획 근무(현)
■ 원주시 우산동 우산APT 7동 502(46－6724)

同 硏究委員 : 孫 琪 昌

■ 강원 평창 출생
■ 정선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원 환경계획과(조경전공) 졸업
■ 문화재 수리 기술자
■ 두손조경연구소 대표(현)
■ 원주시 명륜동 307－25 13/1(42－9689)

雉岳金石文集 第三輯

1994, 2, 25일 印刷
1994. 2. 28일 發行
發行處 : 半 江 古 典 硏 究 所
江原道 原州市 一山洞 189－14
(0371)761－ 2509
44－9955 • 45－4310
ROTC : (0371) 45－4311
F A X : (0371) 45－4312
發行人 : 金 鎬 吉
編 輯 : 蔡熙昇 • 金成讚
印 刷 : 다 손 기 획
(42－8355 • 731－3353)